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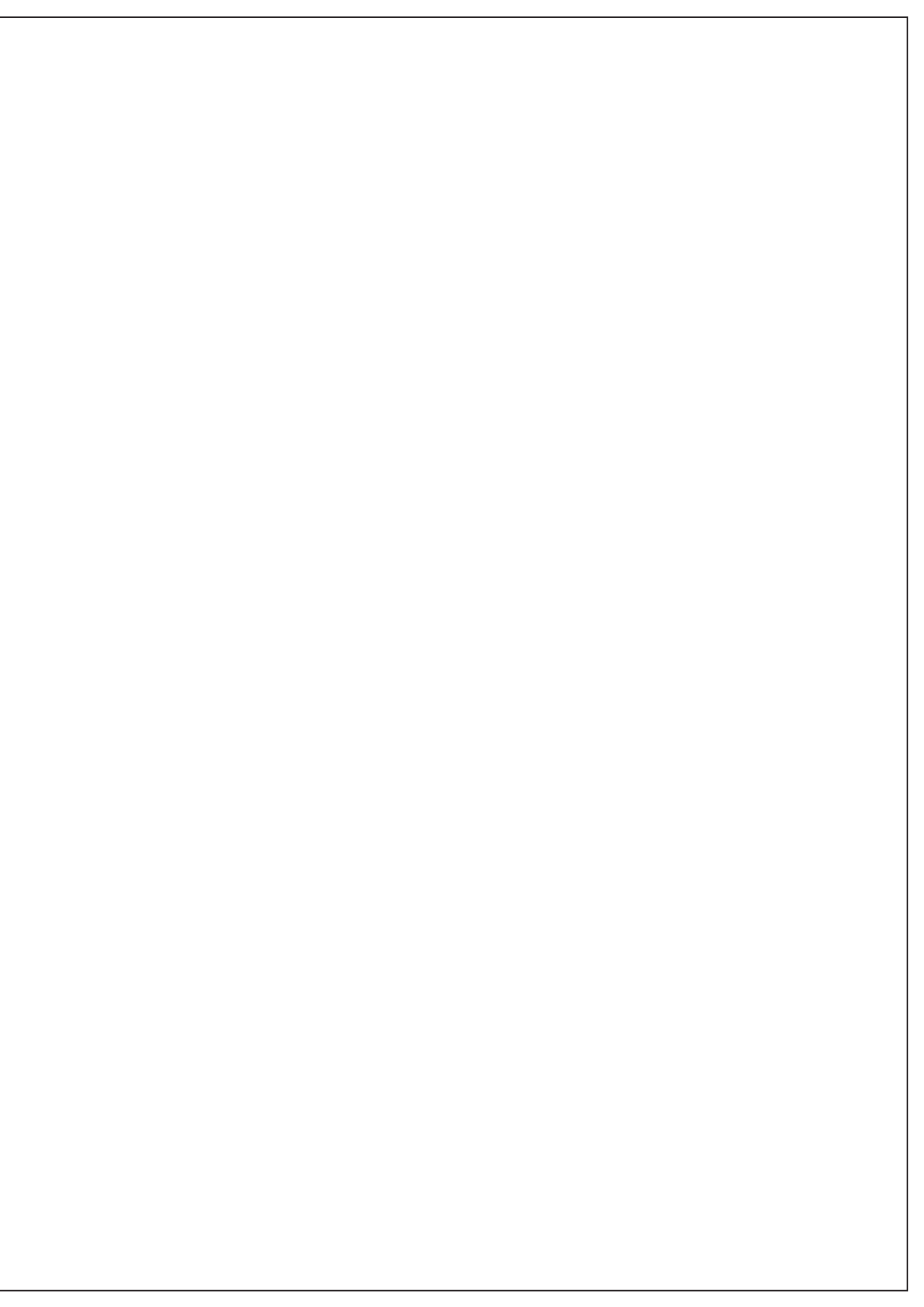
제 출 문

(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2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최종보고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07월

- 연구기관 예술문화교육협동조합
- 책임연구원 변상형 (한남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미학 박사)
 연구원 공광식 (한남대학교 예술문화교육사업단 실장·미술학석사)
 연구원 엄광현 (상명대학교 외래강사·예술학박사)
- 연구보조원 김홍주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박윤선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최현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러두기

-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는 2021년, 대전 전역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과 기타 관련 시설 등에서 진행된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 조사하여 수록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음.
- 중앙의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와 통계 시스템, 문헌 등을 비롯하여 대전지역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문화 예술 관련 정보 사이트와 통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취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이번 조사범위로 최종 설정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의 전시, 공연, 교육, 행사, 출판 등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체 조사체계와 항목에 맞춰 수록하였음.
- 이번 조사 활동을 위하여 조사, 수집된 자료 가운데 기초조사를 통하여 설계한 활동 분류 기준과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들은 자체 판단을 통해 집계 결과에서 제외하였음.
- 대전 전역에서 시행된 문화예술 활동들을 모두 조사,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접근방법과 수집 방법의 한계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누락되거나 미조사된 활동도 있음.
- 대전 문화예술 활동 자료조사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상세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활동 시기와 장소, 활동 주체의 소재지와 형태 등에 관한 내용과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었음.
- 그래서 활동 관련 상세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활동 자체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일부 상세정보와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최대의 정보를 수록하고자 하였음.

① 문학 관련 자료조사

- 문학 분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조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대전을 거점으로 발간된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 등의 출판물, 문학 관련 교육, 행사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국내 주요 서점과 서지정보유통 등을 이용하여 출판물의 경우, 저자와 발간일, 출판사, ISBN, ISSN 등을 파악하였음
- 이 밖에 문학 관련 행사와 전시, 문학 콘서트, 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음

- 문학과 관련된 인문학 강좌 등도 조사 기준에 맞을 경우, 문학의 행사 활동으로 분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음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 스타트, 동아리 클럽, 어린이 독서회, 독서 교실 등과 같은 문학과 독서 관련 교육 활동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 문학 출판물과 관련하여 출판사 또는 발간 주체의 소재지, 발간 시기, ISBN 등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미상>으로 표기하였음
- 다른 활동들의 정보 항목에 맞춰 출판물의 발간일을 시작일에 표기하였으며 종료일에는 <->로 표기하였음
- 문예지의 경우, 여러 방면으로 발간일, 발간 주체, 출판사 등의 정보를 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적으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록적인 측면을 고려, 활동 집계에 포함하였으며 미확인 정보들은 <미상>으로 표기하였음

② 시각예술 관련 자료조사

- 시각예술은 자체 설계한 분류체계에 따라 11개의 세부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를 수록 하였음
- 혼합(적 시각예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간의 융합과 결합을 시도한 전시를 비롯한 관련 활동 등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임
- 대학의 졸업전시, 학과 소개전시, 동아리 전시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상설전시로 진행된 전시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함
- 비엔날레, 아트 페어, 아트 쇼는 물론 시각예술 관련 학술대회, 포럼, 강연회 등도 행사 활동으로 파악하여 시각예술 활동 범위에 포함하였음
- 시각예술과 관련된 일반 출판물을 비롯하여 도록, 기록지 등도 ISBN, ISSN을 확보한 경우에는 최종 집계에 포함하였음
-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추적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록적인 측면을 고려, 집계 대상에 포함해 수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인 못 한 사항 등은 <미상>으로 표기하였음

③ 공연예술 관련 자료조사

- 공연예술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복합(적 공연예술)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연 활동 외에도 공연 예술 관련 교육과 행사 활동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음.
- 기존의 전통적인 공연예술로 분류된 영역과 창극, 판소리, 약극 같은 형태의 활동 등을 국악의 범위로 파악, 조사하였음

- 음악은 서양음악과 악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외에도 대중음악, 외국음악 등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음
- 연극에서는 연극 외에도 뮤지컬과 오페라 등을 포함하였고, 무용의 경우 한국무용, 서양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 모두를 조사범위로 설정하였음
- 복합(적 공연예술)은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 간의 융합과 결합을 통해 진행된 활동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임
- 공연예술과 관련된 행사, 교육 등의 활동도 공연예술의 활동 범위로 파악, 수록하였음
- 공연예술에서도 최종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록적인 측면을 고려, 집계 대상에 포함하였고, 미확인 정보 등은 <미상>으로 표기하였음

④ 다원예술 관련 자료조사

- 다원예술은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4영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다원예술과 관련된 활동에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출판 등이 포함되었음
- 다원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영화에서는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영화관에서 상영된 상업 영화들과 독립영화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단, 도서관이나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서 상영회와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되거나 상영된 일반 영화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공공주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다원예술과 관련된 창작지원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⑤ <혼합>과 <복합> 용어의 차이점

- 공연예술의 범위에만 적용된 <복합>이라는 용어는 공연예술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들 간의 결합이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음악과 무용, 연극과 무용, 무용과 음악, 그리고 연극이 상호 결합한 형태의 공연을 비롯하여 교육, 행사 활동 등에 적용, 사용하였음
- 반면, 문학과 시각예술 등에서 사용한 <혼합>이라는 용어는 중분류에 안에 배치된 영역 내지는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하여 진행된 활동에 적용, 사용하였음
- 혼합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각예술의 경우 회화와 사진, 사진과 공예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공연예술의 경우 무용의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문학의 경우 시와 소설 등의 결합을 통한 전시, 공연, 교육, 행사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목차

일러두기	4
표 차례	8
I. 서론	10
1. 조사 개요	11
2. 조사 배경 및 목적	11
3. 조사의 기대효과	13
II.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체계와 지표항목	14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체계	15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체계의 지표항목	18
III.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구조와 환경	23
1.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황	24
2.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현황	28
3. 대전의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	31
4. 대전의 문화예술인 현황	32
IV. 2021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와 현황	34
1.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전반적 현황	35
2. 문학 현황	41
3. 공연예술 현황	50
4. 시각예술 현황	63
5. 다원예술 현황	76
V. 종합분석과 제언	88
1. 종합분석	89
2. 향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한 제언	92
참고문헌	95

표차례

[표 1]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흐름도	12
[표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분류 체계	15
[표 3] 대전 문화예술 활동 문학 체계	15
[표 4] 대전 문화예술 활동 시각예술 체계	16
[표 5] 대전 문화예술 활동 공연예술 체계	17
[표 6] 대전 문화예술 활동 다원예술 체계	18
[표 7] 2020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지표 체계와 항목	19
[표 8] 2020~2021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지표항목 비교	19
[표 9]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지표항목 내용	20
[표 10]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주요 지표항목 내용	21
[표 11] 대전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전체 현황	26
[표 12] 대전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자치구별 현황	26
[표 13] 대전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분야별 현황	27
[표 14] 202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참여 대전지역 예술인 현황	27
[표 15]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비교	37
[표 16]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대분류별 비교	37
[표 17]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활동유형별 비교	38
[표 18]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분기별 현황	39
[표 19]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자치구 현황	39
[표 20]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운영형태 현황	39
[표 21]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전체 현황	39
[표 22]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43
[표 23]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분기별 현황	43
[표 24]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자치구별 현황	43
[표 25]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전체 현황	44
[표 26]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51
[표 27]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52

[표 27]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	52
[표 28]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자치구 현황	-----	52
[표 29]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전체 현황	-----	64
[표 30]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	64
[표 31]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	65
[표 32]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자치구별 현황	-----	65
[표 33]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전체 현황	-----	78
[표 34]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	78
[표 35]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	78
[표 36]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자치구별 현황	-----	79

I. 서론

1. 조사 개요
2. 조사 배경 및 목적
3. 조사의 기대효과

1. 조사 개요

- 조사 과제명 : 2022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
- 조사 내용
 - 2021년 대전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조사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자료 제시

2.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고유의 조사체계를 도입,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국내의 여러 지자체와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외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기준과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파악을 위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역의 상황과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시의성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 조사 목적

- 대전지역을 거점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되고 실시된 문화예술 단체와 시설,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고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함
- 중앙의 표준화된 조사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된 조사체계에 따른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실제적인 생태계와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3) 조사범위와 내용

- 조사 대상 및 범위 : 대전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개최되고 실시된 문화예술 활동
- 공간적 범위 : 대전지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1. 01. 01.~12. 31.
- 대상적 범위
 - 대전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개최되고 실시된 문화예술 활동 전반 조사
 - 대전문화재단의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조사』(2021)에 제시된 대전 문화예술 활동 분류 체계와 조사항목 등을 기반으로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아래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하고자 함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조사』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총 4개 분야로 문화예술 활동을 분류 및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대전지역에서 실시된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및 연구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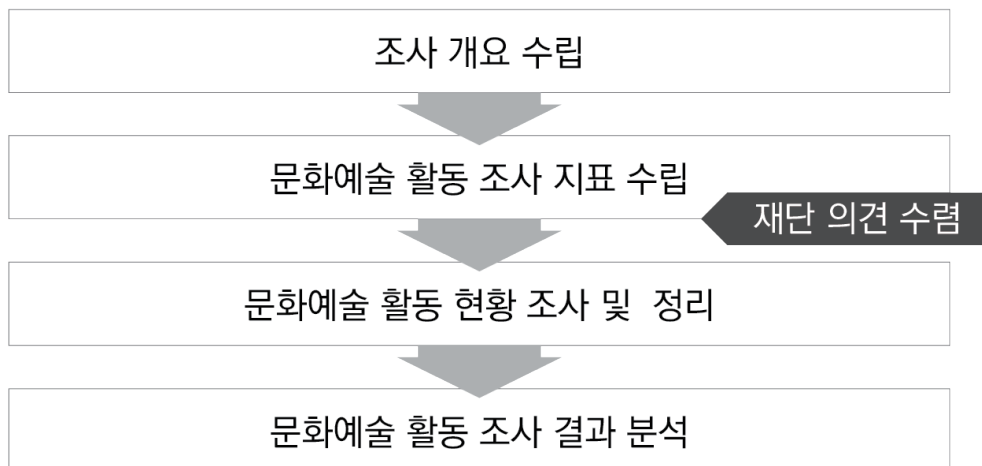
4) 조사 방법과 대상

- 조사 방법
 - 국내 문화예술 관련 통합시스템을 통한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 문화예술 관련 정보 사이트 검색을 통한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대전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유·무선 접촉을 통한 2021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기타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및 정보 등을 통한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 및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초자료와 문헌 조사 및 분석
- 조사 내용
 - 조사개요 수립
 - 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통한 대전 문화예술 활동과의 비교 분석 및 현황 점검
 -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에 따른 대전 문화예술 활동유형과 세부 조사항목 점검 및 보완 방안 마련

-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전문화재단의 분류체계와 새로 추가된 지표항목에 따른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 대전문화재단의 분류체계와 새로 추가된 지표항목에 따른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 정리 및 작성
 - 대전문화재단의 분류체계와 새로 추가된 지표항목에 따른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 분석
- 시사점 도출
 -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도출
 -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를 통한 주요 정책적 제언 및 방안 제시

5) 조사 흐름도

[표 1]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흐름도



3. 조사의 기대효과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파악 및 점검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및 자료 축적을 통한 향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방향성 전망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연간 결과 누계 및 비교 분석을 통한 대전 문화예술 활동 정책 구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II.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체계와 지표 항목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체계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체계의 지표 항목

1.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체계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설계된 조사 체계를 바탕으로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체계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다원예술로 문화예술을 크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대전 문화예술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1년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 사용한 문화예술 활동의 큰 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문학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희곡·시나리오, 혼합
시각예술	공예, 디자인, 서예, 회화, 드로잉, 판화, 서예, 조각·설치, 건축, 사진, 뉴미디어, 혼합
공연예술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복합
다원예술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웹툰·애니메이션

- 중분류에 속하는 분야들은 다음과 사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문학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대전 문화예술 활동 문학 체계

문학	
시	· 시, 시조와 같이 언어의 운율을 압축적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소설	· 소설과 같이 산문으로 서술한 서사나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수필	· 수필, 기행문 등과 같이 창작 주체의 관점에서 산문 형식으로 표현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희곡· 시나리오	· 희곡, 시나리오와 같이 상연을 전제로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아동문학	· 동시, 동요, 전래동화, 창작동화, 그림책 등과 같이 어린이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동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흥미를 자아내는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혼합	· 문학의 중분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분야들이 둘 이상 결합하여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분류체계인 ISBN와 ISSN을 확보하고 국제 출판물 표준 지표인 ISE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창작물을 문학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하여 조사하였음

■ 시각예술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대전 문화예술 활동 시각예술 체계

시각예술	
공예	· 도자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등과 같이 실용적인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디자인	·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거나 제작된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판화	· 목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 디지털 프린트 등과 같이 판을 이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드로잉	· 스케치, 크로키 등과 같이 평면예술의 기초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서예	· 서예, 전각, 캘리그래피 등과 같이 문자를 소재로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사진	· 기록사진, 풍경사진, 인물사진 등과 같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조각·설치	· 석조, 목조, 용접, 소조 등과 같이 공간 속에 입체성을 표현한 창작물과 오브제, 조명, 음향, 영상 등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을 작품화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회화	· 한국화, 서양화 등과 같이 다양한 안료와 재료 등을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뉴미디어	·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 샌드 아트 등과 같이 텔레비전, 비디오 필름, 컴퓨터, 디지털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건축	·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목적에 맞게 계획, 설계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모든 제작물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혼합	· 시각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분야들이 둘 이상 결합하여 제작된 작품과 관련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 공연예술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대전 문화예술 활동 공연예술 체계

공연예술	
국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 악기와 노래 형식으로 연주하거나 실연하면서 소개되는 공연과 창작물 · 풍물, 사물놀이, 굿, 악극, 창극 등과 같이 다양한 전통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한 데 어울려 실연되는 공연과 창작물 · 국악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혼합적 공연과 창작물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악기와 노래 형식으로 연주하거나 실연하면서 전개되는 공연과 창작물 · 관현악, 합창 등과 같이 다양한 서양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한 데 어울려 실연되는 공연과 창작물 · 대중음악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악기와 노래 형식을 사용하여 연주되거나 실연되는 공연과 창작물 ·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의 결과물과 공연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창작물과 결과물 · 음악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혼합적 공연과 창작물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통 무용의 형식을 바탕으로 실연되거나 창작되는 공연과 창작물 · 서양에서 발달해온 무용의 형식을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실연되는 공연과 창작물 · 무용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실험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실연되거나 창작되는 공연과 창작물 · 스트리트 댄스, 실용댄스 등의 대중무용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무용 형식을 사용하여 실연되는 공연과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창작물과 결과물 · 무용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혼합적 공연과 창작물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에 따라 배우와 무대 등을 사용하여 실연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과 창작물 · 오페라, 뮤지컬 등과 같이 대본을 바탕으로 성악을 전개하거나 무용등이 어울려 실연되거나 제작된 공연과 창작물 · 인형극, 넌버벌 퍼포먼스, 쇼 등과 같이 공연적 요소를 갖고 실연되거나 창작되는 공연과 창작물 · 여러 가지 장치나 트릭을 사용하여 무대에서 실연되는 공연 · 이상과 관련된 창작물과 공연물 · 연극의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혼합적 공연과 창작물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의 중분류에 속하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의 분야들이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실연되거나 제작되는 공연과 창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 다원예술의 중분류 체계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제시된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웹툰·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다원예술의 기준과 사항 등을 바탕으로 다원예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조사하였음

[표 6] 대전 문화예술 활동 다원예술 체계

다원예술	
탈분류	· 회화와 연극, 무용과 영화, 건축과 음악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대분류체계에 속하는 분야가 두 가지 이상 결합하여 제작되거나 실행되는 출판물, 전시와 공연, 행사 등의 결과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다제간	· 과학과 무용, 여행과 소설, 사진과 음식, 역사와 음악 등과 같이 비예술적인 영역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의 중분류에 속하는 예술활동이 결합하여 제작되고 실행된 출판물,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의 결과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영화	·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결과물을 제외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과 관련된 상영 및 제작, 교육, 행사 등과 관련된 활동 및 결과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만화·웹툰·애니메이션	· 그림과 글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만화와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거나 원작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활동 및 결과물 · 온라인 배포를 전제로 제작되는 웹툰 제작물 · 이상의 것들과 관련된 결과물과 활동

2.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체계의 지표 항목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의 조사 지표 체계에 새로운 지표항목들을 추가하여 조사 체계를 보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1년의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서는 8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조사 활동이 이뤄지고 최종 집계를 실시하였음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사용한 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 2020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지표 체계와 항목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지표								
대분류	중분류	활동유형	시작일	종료일	건명	개최장소	자치구	운영형태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표 7>의 항목에 새로운 지표 항목들을 추가하여 새로운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음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활동형태, 활동 기간, 활동 주최·주관, 활동 주최·주관 주체 구분, 활동장소 운영 주체>와 같은 5개의 지표항목들이 새로 설정되어 좀 더 세분화된 활동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음

[표 8]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지표항목 비교

대전 문화예술 현황 조사 지표 항목	
2020	2021
대분류 중분류 활동유형 시작일 종료일 개최장소 자치구 비교 (운영형태)	대분류 중분류 활동유형 활동형태 시작일 종료일 행사 기간 행사주최·주관 행사주최·주관 주체 구분 활동장소 활동장소 운영 주체 자치구 비교 (운영형태)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 사용된 지표항목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9]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지표항목 내용

지표항목	내용
활동유형	· 출판, 전시, 공연, 행사, 상영, 교육, 지원의 항목으로 활동유형을 나뉘 모든 대분류에 적용하였음 · 공연예술의 초연과 재공연 현황을 함께 표기하였음
활동형태	· 활동유형의 성격에 맞춰 활동형태를 구분하여 모든 대분류와 중분류에 적용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출판으로 구분된 경우, 단행본, 전자책, 문예지, 전시 도록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활동유형을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공연으로 구분된 경우, 성악공연, 기악공연, (성악과 기악공연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한) 혼합공연 등을 적용하여 활동유형을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전시로 구분된 경우, 단체전시, 개인전시 등을 적용하여 활동형태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행사로 구분된 경우, 축제, 강연회, 북 콘서트, 공모, 경연, 시사회 등을 적용하여 활동형태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상영으로 구분된 경우, 상영회, 시사회 등을 적용하여 활동형태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교육으로 구분된 경우, 체험형, 강의형 등을 적용하여 활동형태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지원으로 구분된 경우, 지원 받은 중분류의 분야를 적용하여 표기하였음 · 공연과 전시, 행사와 교육 등 활동유형의 구분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중복되어 실행된 활동 등은 기타로 활동유형을 표기하였음
시작일	· 활동이 시작된 일자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출판으로 구분된 경우, 발간 일자를 시작일로 상정하여 표기하였음
종료일	· 활동이 종료된 일자를 표기하였음 · 활동유형에서 출판으로 구분된 경우, 발간 활동의 성격상, 종료일이 없으므로 (-)로 표기하였음
활동 기간	· 활동이 시작된 날짜와 종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표기하였음 · 활동 기간 중 진행된 프로그램의 개수와 활동 횟수 등이 파악 가능한 경우 함께 표기하였음 · 활동 기간 중 진행된 프로그램의 개수와 활동 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기하지 않거나 (-)로 표기하였음
활동 주최 · 주관	·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개인, 단체, 기관, 시설 등을 표기하였음 · 출판 활동의 경우, 발간물을 출판한 저자나 엮은이 등을 출판 활동의 주체로 이해해 표기하였음 · 출판 활동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 등도 활동 주최·주관의 주체로 이해해 표기하였음
활동 주최· 주관 주체 구분	·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기관을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크게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지표항목	내용
활동장소	·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와 시설, 기관 등을 표기하였음 · 출판 활동의 경우, 발간을 주도하거나 출판한 주체, 출판사 등을 활동 장소로 이해해 표기하였음
활동장소 운영 주체	·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장소, 시설 등을 운영하는 주체를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자치구	· 활동이 진행된 장소, 시설, 기관 등이 속한 자치구를 표기하였음
비고	· 출판 활동의 경우, 발간물의 ISBN, ISSN 등을 표기하였음 · 대면과 비대면 등의 운영형태와 현황을 표기하였음

-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와 공통적인 점들과 대분류별로 주요한 지표항목 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주요 지표항목 내용

대분류	내용
문학	· 문예지의 경우, 발간주기를 기준으로 연간, 계간, 월간 등으로 나눠 활동형태에 표기하여 수록하였음
시각예술	· 시각예술에서도 ISBN과 ISSN을 확보한 시각예술 관련 발간물은 출판 활동으로 표기하여 수록하였음 · 시각예술의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상영, 공연 등의 활동 형태를 통해 진행된 경우, 공연이라는 활동유형을 적용, 표기하였음
공연예술	· 초연과 재공연으로 진행된 상황을 구분, 활동유형에 포함하여 수록하였음 · 중분류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형태의 기준과 사항을 적용, 성악 공연, 기악공연, 극공연, 한국무용공연, 오페라공연, 마술공연 등으로 활동 형태를 구분, 표기하였음
다원예술	· 다원예술에서도 ISBN과 ISSN을 확보한 다원예술 관련 발간물은 출판활동으로 파악하여 수록하였음 ·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된 다원예술에서는 일회적인 영화 상영과 시사회, 애니메이션 상영과 시사회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상영회, 시사회 등이라는 활동형태를 적용, 표기하였음 ·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간이 긴 점, 지원 체계를 통한 활동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 활동유형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수록하였음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는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을 기록하고 파악하는 정보를 확보한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활동과 주체 등이 활동 했는가를 살펴보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 조사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활동도 있었음
- 이러한 활동도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여겨 조사 활동의 집계와 편람에 수록하였고, 부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항들은 <미상>으로 표기하였음
- 현재, 문화예술 활동은 기존의 문화예술 체계를 벗어나 기존의 문화예술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던 분야와 결합하거나 융합하며 진화해가고 있다는 점과 비예술적인 영역의 활동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개입하거나 참여한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비예술 영역에서 진행되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이 함께하거나 개입한 경우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파악, 문화예술 활동 지표 체계와 항목을 적용하여 수록하였음

Ⅲ.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구조와 환경

1.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황
2.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현황
3. 대전의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
4. 대전의 문화예술인 현황

1.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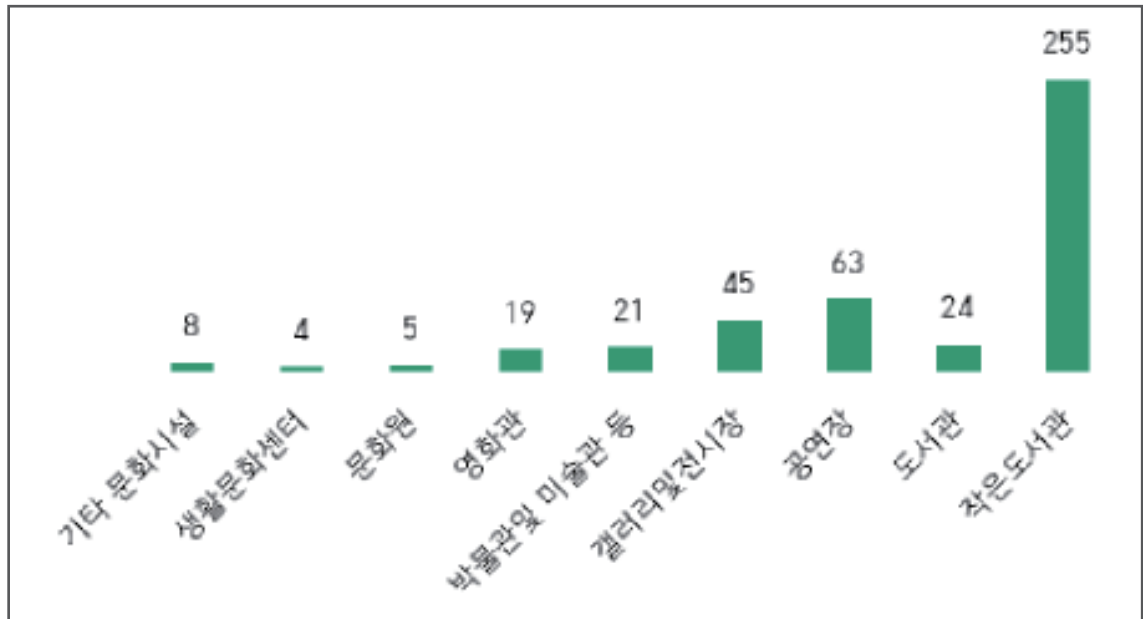
- 대전 통계 연보』를 통해 대전시에서는 매년, 대전의 문화 예술 기반시설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집계되고 있어 대전의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기반구조와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대전지역 문화 예술 기반시설과 인적 자원 등에 관한 조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료인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황 자료와 정보 등은 대전지역만을 다룬 통합적인 자료와 창구 등이 부재한 관계로 중앙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중앙에서 집계한 자료, 대전시청 자료 등을 비롯하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작은 도서관이었고, 255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은 적게 개최되고 있었음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19곳이며,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문학관 같은 박물관 계열의 시설이 2곳 운영되고 있음
 - 여러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대전지역의 주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 (255곳)→공연장 (63곳)→전시장 (45/39곳)→도서관 (24곳)→박물관·미술관 등 (21곳)→영화관 (19건)→문화원과 기타 문화시설 (13곳)→생활문화센터 (4곳)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구 (124곳)→서구 (96곳)→중구 (94곳)→대덕구 (64곳)→동구 (60곳)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대전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집계에서는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거나 열린 곳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곳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대전지역 문화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12% 가량을 차지하는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 또한, 중앙과 실제 조사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중앙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52곳의 문화예술법인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에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진행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나 법인, 기관, 사업체 등은 대략 550여곳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이 중 가장 많은 단체나 법인 등이 참여한 분야는 공연예술이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와 법인 외에도 다른 분야의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단체와 법인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 중 대전시립예술단 산하의 예술단체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하였고,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지역의 예술인은 기본적으로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산하 기관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는 있으나, 특정의 활동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며 집합한 동인 단체 등의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도 병행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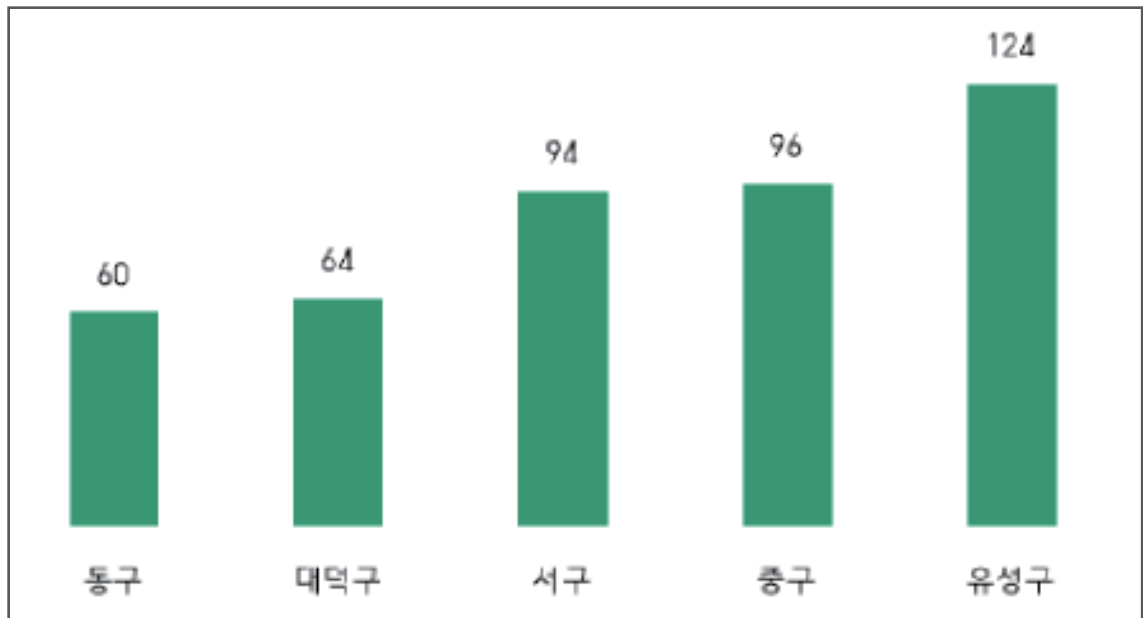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대전지역의 종건 예술인은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산하기관과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종건 예술인들과는 달리 대전지역의 예술가들 가운데에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산하의 기관 및 단체와 무관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인도 많다는 것을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뿐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 공간을 벗어나 대안적 공간, 비문화예술적인 공간 등을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홍보 매체와 수단 등을 통하지 않고 SNS 매체만으로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예술가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중앙의 집계와 공식적인 통로,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예술인이 대전을 거점으로 개별 활동 내지는 단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종건 예술인들과는 달리 대전지역의 젊은 예술가들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산하의 기관과 단체와 무관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인도 많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중앙의 집계와 공식적인 루트,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예술인이 대전을 거점으로 개별 활동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 11] 대전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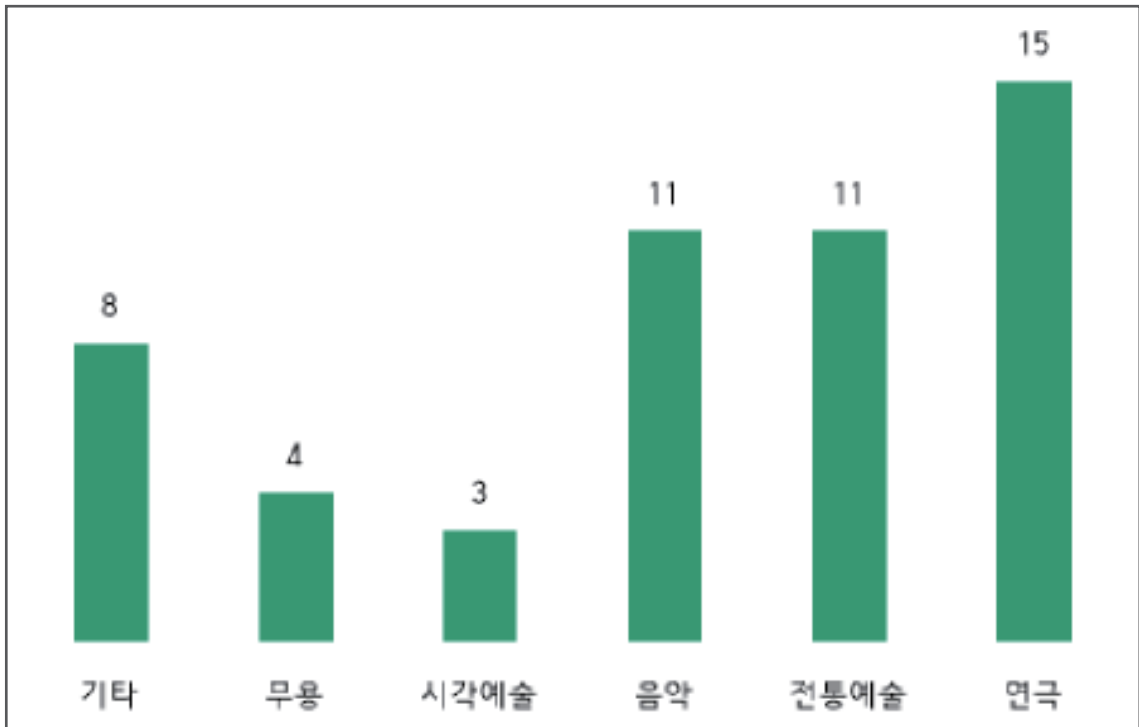
자료출처 :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대전시청 자료 등

[표 12] 대전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자치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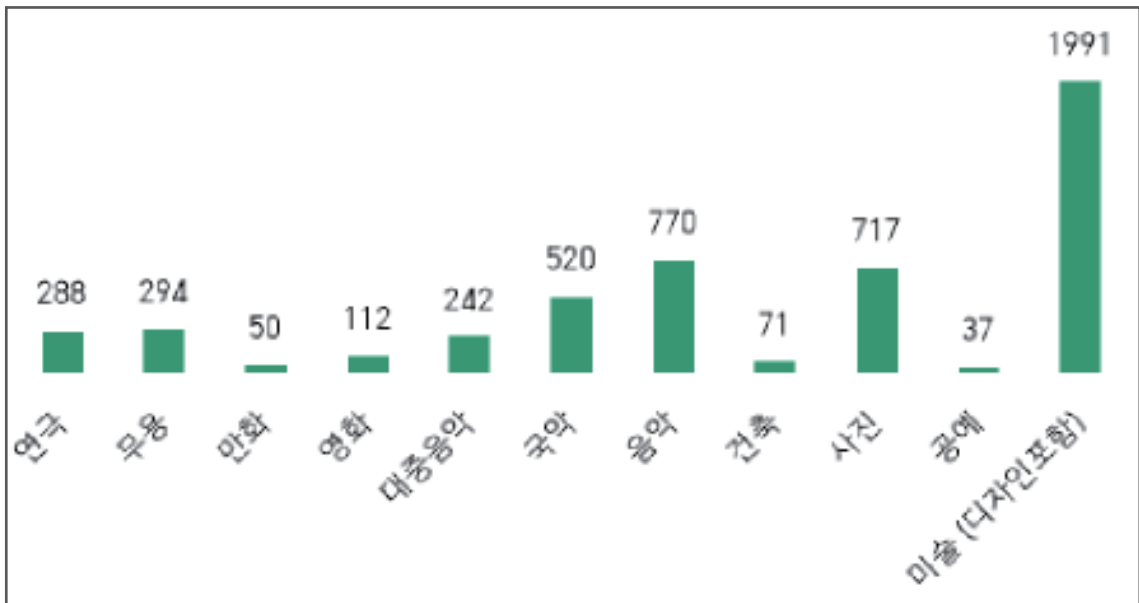
자료출처 :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대전시청 자료 등
(갤러리 및 전시장 6곳은 소재지 미상으로 집계에서 제외한 현황임)

[표13] 대전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분야별 현황



자료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년

[표 14] 202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참여 대전지역 예술인 현황



자료출처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관광체육부, 2021)

2.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현황

- 대전시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는 279곳의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교육을 통한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외에도 도서관 행사로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거나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도서관 역시 대전의 중요한 문화예술 관련 기반 시설이라할 수 있음
 - 대전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24곳이 있으며 2곳은 교육청 산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대전의 도서관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구 (7곳)→ 동구 (6곳)→서구 (5곳)→대덕구와 중구 (각 3곳) 순으로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외에도 대전시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는 작은 도서관이 255곳이 운영되고 있음
 - 작은 도서관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208곳이었고,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47곳이었음
 - 2021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의 숫자에 비례해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유성구이었음
 - 대전의 작은 도서관이 분포된 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 (80곳)→중구(54곳)→서구 (48곳)→대덕구 (40곳)→동구 (33곳) 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대전시에 소재한 공연과 관련된 시설은 63곳이며 4곳은 야외 공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대전시에 소재하는 공연과 관련된 시설 가운데 37곳은 자치구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전시의 공연과 관련된 시설은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31곳이고, 23곳은 민간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9곳은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음
 - 공연과 관련된 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중구이며 공연과 관련된 시설을 자치구별로 정리해보면, 중구 (17곳)→서구 (18곳)→대덕구 (12곳)→유성구(10곳)→동구 (6곳)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대전시와 대전시의 자치구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주체의 소극장 형태 공연장과 공공건물의 부속시설 등에서도 관련 시설을 활용하면서 공연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를 열거나 진행하고 있음

- 대전시에 소재한 전시 관련 시설은 66곳(60곳)이며 박물관, 미술관, 화랑 및 갤러리등 전문 전시시설 외에도 문화원, 도서관, 공공시설의 부속시설, 카페 갤러리 등에서 전시와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고 있음

-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관을 포함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은 21곳이며 국립 시설 1곳을 포함하여 공공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은 8곳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6곳, 대학교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곳은 6곳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화랑, 갤러리 등 전시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집계된 자료가 없으나, 대전시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45곳이 전시 관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파악이 가능한 곳은 39곳이었음
- 한편, 대전시의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만 24곳의 화랑, 갤러리 등 전시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음
- 대전시에 등록되거나 자치구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전시 관련 시설 이외에도 바른생각병원에서 운영하는 바른 갤러리, 문화공간 주차, 레드엘 갤러리, 카페 63번길 갤러리, 작은창큰풍경 갤러리 등과 같은 대안적 전시 관련 공간이나 시설에서도 활발한 전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관, 문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구(10곳)→동구(4곳)→서구(3곳)→대덕구(3곳)→중구(2곳)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대전시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의 화랑, 갤러리 등 전시장 관련 시설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중구(12곳)→유성구(11곳)→서구(10곳)→동구와 대덕구(각 3곳) 순으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시에 소재한 영화관은 19곳이며 모두 민간주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관으로 등록된 시설은 19곳이며 이 중 1곳은 야외 영화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독립영화상영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곳이며 중구에 위치해 있음
-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에 영화관이 2021년, 새로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음
- 영화관 이외에도 도서관, 문화원, 대학, 공공시설 등의 공연 관련 시설이나 기타공간 등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과 관련된 행사들이 개최되거나 진행되고 있음
- 대전에는 서구에 가장 많은 영화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덕구에는 영화관이 1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영화관 전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서구(8곳)→유성구와 동구(각 4곳)→중구(3곳) 순으로 집계됨

■ 이외에도 대전에는 여러 문예회관이나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의 기타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대전에는 동구와 중구에 각각 1곳의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서구에는 2곳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대전의 자치구 5곳은 모두 문화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들에서는 시민과 지역주민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구문화원에서는 <전국 시낭송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서구문화원에서는 서구예술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대덕문화원에서는 <김호연재 여성취미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밖에도 대전에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전통나래관, 테미오래 등의 기타 문화예술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시설 또는 장소 가운데 2021년,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곳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음

-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문학관 외에도 대전시립박물관과 대전시립선사박물관, 대전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등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21곳의 박물관, 미술관 관련 시설 등에서는 전시 외에도 공연, 교육, 행사 등이 자주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각각의 자치구가 운영하는 5곳의 문화원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개최되거나 진행되었는데, 중구문화원이 가장 많은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에서 2021년 가장 활발한 활동성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은 중구에 자리한 대전 예술가의집 전시실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문화원 가운데 전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열린 곳은 중구문화원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는 갤러리 M과 모리스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전시 활동이 열렸고, 다음으로는 갤러리 고트빈과 영아트갤러리 등이었음
- 공연 관련 시설이나 장소 가운데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이 열린 곳은 대전예술의전당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는데, 이 두 곳에서 진행된 공연 활동은 대략 390여 건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관련 시설 중에는 서구의 아트브릿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연 활동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3. 대전의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고, 그나마 전국적 규모에서 파악한 자료와 간접 통로를 통해 그 현황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전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실이기도 함

- 단체의 임의 등록제로 운영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 목록에 올라 있는 대전지역의 예술 관련 단체와 법인은 52곳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사)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등을 비롯하여 (사)한빛사랑예술원, (사)대전팝오케스트라, (사)마당극패 우금치 등과 같은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었음
 - 재단법인으로는 (재)대전문화재단과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1곳 있었음
 - 극단 새벽, 토끼가 사는 달, 이정애무용단, 극단 앙상블, 대전판소리고법보존회, 예술의향기, 대전 오페라단, 현대마임 제스튀스 등과 같은 20곳의 예술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등록된 대전지역의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는 크게 예술단체,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해 집계해 보면, 예술단체 (20곳)→사단법인 (14곳)→재단법인 (2곳)→사회적 협동조합 (1곳) 순이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등록된 대전의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를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연극 (15곳)→ 전통예술과 음악 (각 11곳)→기타 (8곳)→무용 (4곳)→시각예술 (3곳) 순이었음

- 이외에도 대전시 산하에 대전시립예술단이 있으며 2019년 대전지역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는 2,584곳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음
 - 대전시립예술단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소속되어 있으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상주단체로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활동하고 있음
 -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에는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사)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사)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등 10개 분야의 문화예술협회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 위의 2019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대전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시각예술과 공예와 관련된 사업체 (840곳)→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체가 (165곳)→공연예술 및 축제와 관련된 사업체 (160곳)→출판 및 도서와 관련된 사업체 (61곳)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에 문화예술 활동을 열거나 진행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법인 등은 55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문화예술 활동을 1건 이상 추진한 문화예술 단체와 법인 등을 조사결과에 비춰 살펴보면, 대략 550여 곳의 문화예술 단체와 법인, 관련 사업체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전의 많은 문화예술 단체나 법인, 사업체 가운데 활동성을 보여주는 주체들을 파악하는 자료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문화예술 단체 내지는 법인은 대전시립예술단 산하의 예술단체들이었으며 대전시립교향악단과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 중에는 소극장 고도,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타악그룹 판타지 등 공연예술 관련 예술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예술기획, 공연기획 피움, 나무예술기획 같은 곳들이 활발한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주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4. 대전의 문화예술인 현황

- 대전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기본적으로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산하 단체들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실태와 현황은 알 수 없음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에 관한 현황과 실태 또한 부분적인 연구와 보고서는 존재하나, 대전지역을 총괄하여 파악한 자료와 정보는 없으며 간접 자료와 통로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런 가운데 2021년에 발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 조사』에 참여한 대전지역의 예술인은 6,295명이었으며 시각예술분야와 관련된 예술인 2,816명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전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전지역의 예술인 실태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한 현재 시점에서는 간접자료인 동시에 지역의 예술인 현황과 활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예술인,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조사 모집단을 구축하였음

- 국내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근거해 문학, 미술(디자인 포함), 음악,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연극, 영화, 방송연예, 만화 등의 1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규모의 예술인들로 구축된 조사 모집단에 참여한 대전지역 예술인은 6,295명이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참여한 예술인 중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된 예술인이 가장 많은 2,816명이 참가하였고, 공연예술 분야 관련 예술인은 2,114명, 영화 부문에서는 112명, 만화 분야에서는 50명이 참여하였음
- 이에 참여한 대전지역 예술인 숫자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디자인을 포함한) 미술 1,991명, 공예 37명, 사진 717, 건축 71명, 음악 770명, 국악 520명, 대중음악 242명, 방송연예 87명, 무용 294명, 연극 288명, 영화 112명, 만화 50명, 기타 48명과 미분류 15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예술인 자격으로 학교예술강사 활동을 한 예술인 숫자는 188명(타 지역 예술인 포함)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 중 국악이 가장 많은 6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예 10명, 디자인 6명, 만화·애니메이션 21명, 무용 45명, 사진 7명, 연극 26명, 영화 4명이 학교예술강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를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체계에 맞춰 정리해보면, 공연예술 (140명)→다원예술 (25명)→다원예술 (23명) 순으로 대전지역의 예술인이 학교예술강사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결과를 통해 대전지역의 예술인 활동을 살펴보면, 많은 예술인이 단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많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전 또는 2인전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주회, 독창회, 듀엣 공연, 트리오 공연 등의 공연 활동을 통해 개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문학 분야의 경우, 개별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문예지와 단편 창작물을 발표하며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학교예술강사 활동 외에도 도서관, 문화원,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간과 시설 등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었음

IV. 2021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와 현황

1.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전반적 현황
 2. 문학 현황
 3. 공연예술 현황
 4. 시각예술 현황
 5. 다원예술 현황

1.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전반적 현황

- 2021년 대전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은 총 2,305건이었으며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열리거나 개최되었음
 - 2021년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활동 현황을 2020년과 비교해 점검해보면, 1,722건으로 집계된 2020년에 비해 583건이 더 많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345% 정도 조금 웃도는 활동이 열리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에도 공연예술과 음악 분야가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2021년에도 역시 공연예술과 음악 분야에서 최고로 많은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의 회화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21년에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여준 분야는 시각예술의 사진 분야였는데, 2020년에 49건의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된 사진 분야에서는 2021년에 112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 또한, 644건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2020년에 비해 무려 28% 정도 증가하여 활동이 열리거나 개최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0년에는 전시, 공연, 출판, 행사, 교육 등의 활동유형 가운데 공연 활동이 가장 많이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된 것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공연 활동이 최고의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에 116건의 활동이 펼쳐진 행사 활동은 2021년에는 244건 개최되어 2020년에 비해 110%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대전 문화예술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음
 - 2021년 대전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의 전체 현황을 대분류별로 나눠 살펴보면, 공연예술(823건)→시각예술(678건)→문학(505건)→다원예술(299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4분기(905건)→3분기(574건)→2분기(544건)→(2020년에 개최되어 2021년에도 계속 진행된 활동을 포함한) 1분기(275건)→미상(7건)의 순으로 개최되거나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점검해보면, 2021년에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서구(785건)→중구(608건)→동구(411건)→유성구(395건)→대덕구(85건)→미상(20건) 순으로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울시 종로구에서 온라인 중계로 열린 활동에 대전지역도 동시 참가, 개최한 활동이 1건이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문학 분야를 제외한 전체 활동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이 약 80%와 17%,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이 2%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출판과 명확하게 운영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활동 등을 제외한 전체 활동 중 대면 방식이 약 81%, 비대면 방식이 약 14%, 5% 정도가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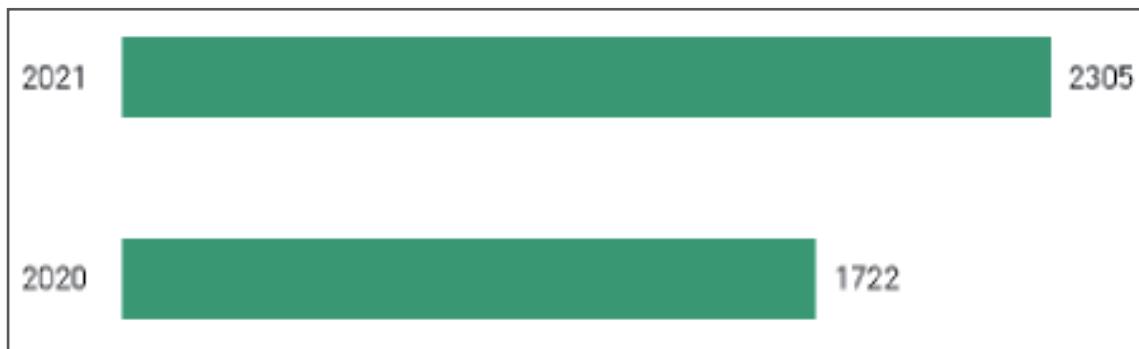
- 2021년에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 분야에서 전시와 공연 활동이 1342건 진행되었는데, 이 중 91%에 가까운 활동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시 활동이 전체 활동의 약 78%를 차지한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429건의 전체 활동이 진행된 전년에 비해 약 61% 증가한 678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 역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약 28% 가량의 활동이 더 늘어나 823건이 진행되거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의 공연예술 전체 활동 가운데 162건의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2021년도에는 50건의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그리고 50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의 행사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형태로 진행된 것은 축제 활동이었음
 - 2021년,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 분야의 행사 활동에서 최고로 많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활동형태는 축제 활동이었음
 - 2020년에는 축제를 비롯하여 북 콘서트, 강연회 등의 많은 행사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1년에는 많은 행사가 대면 또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전환되어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시각예술 분야의 <대전 건축 문화제>, 공연예술의 <대전 인디음악 축전>, 다원예술의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등과 같은 몇몇 행사들은 전년부터 도입한 비대면 방식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며 열렸음
 - 또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대전 브루스 축제> 같은 문화예술 관련 축제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되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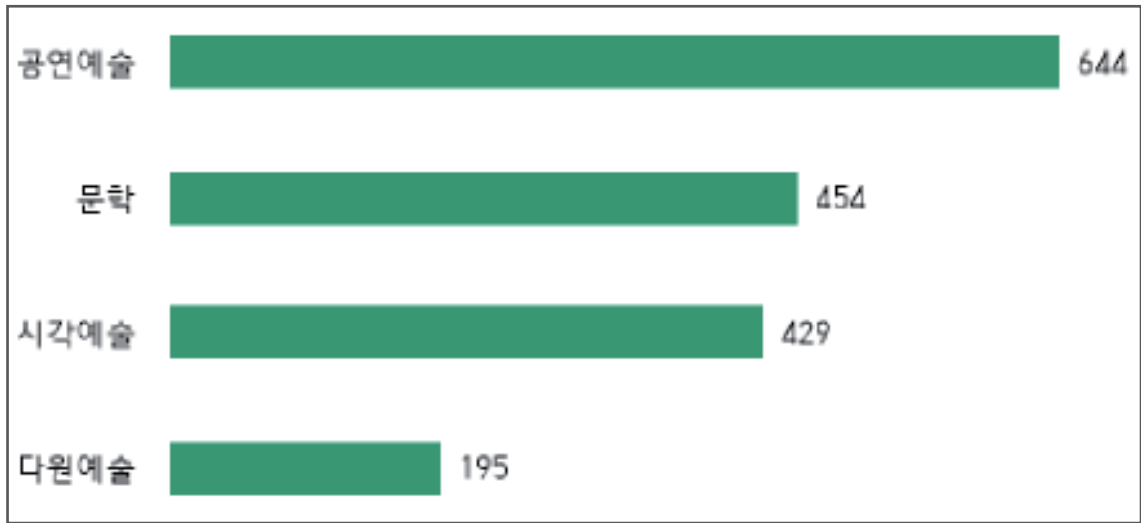
- 2021년에 진행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은 224건이었으며 전년대 비교하여 약 34건 감소하여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021년, 대전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가운데 교육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 외에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장소 등에서도 많은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야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경우도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음
 - 전년에 비해 도서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문화예술 활동 체험과 생애주기별 교양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 외에도 2021년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 내지는 공동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등도 많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 4개의 분야에서 258건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진행된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4분야에서 224건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열리거나 개최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아동문학 분야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에는 도서관에서 실시한 독서 동아리, 북 클럽 등을 통한 문학 활동들을 활동 현황 조사에 포함해 집계하였으나, 2021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제외해 집계한 영향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2020년에는 문학의 아동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2021년에는 다원예술의 탈분류 분야에서 최고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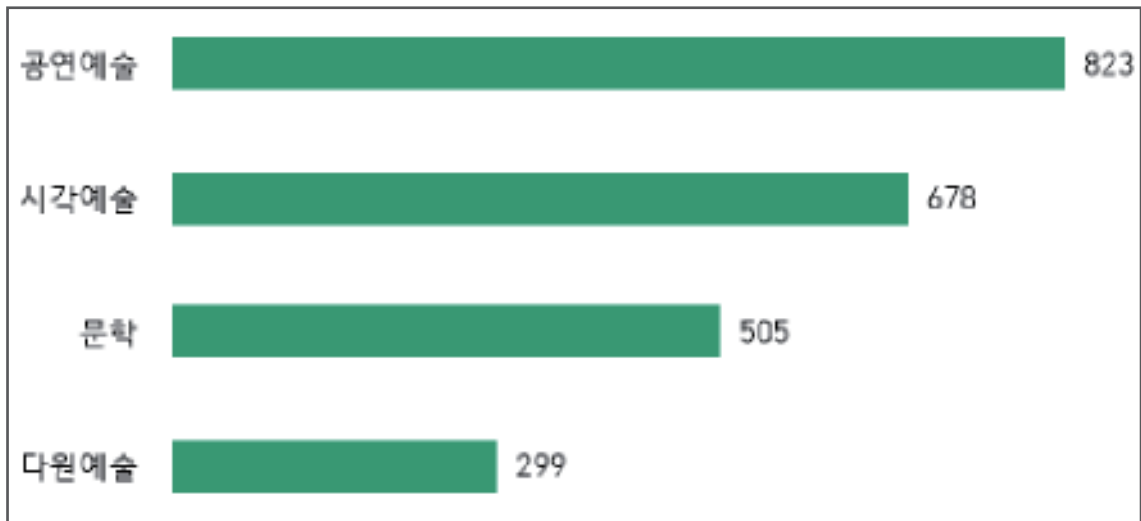
[표 15]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비교



[표 16]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대분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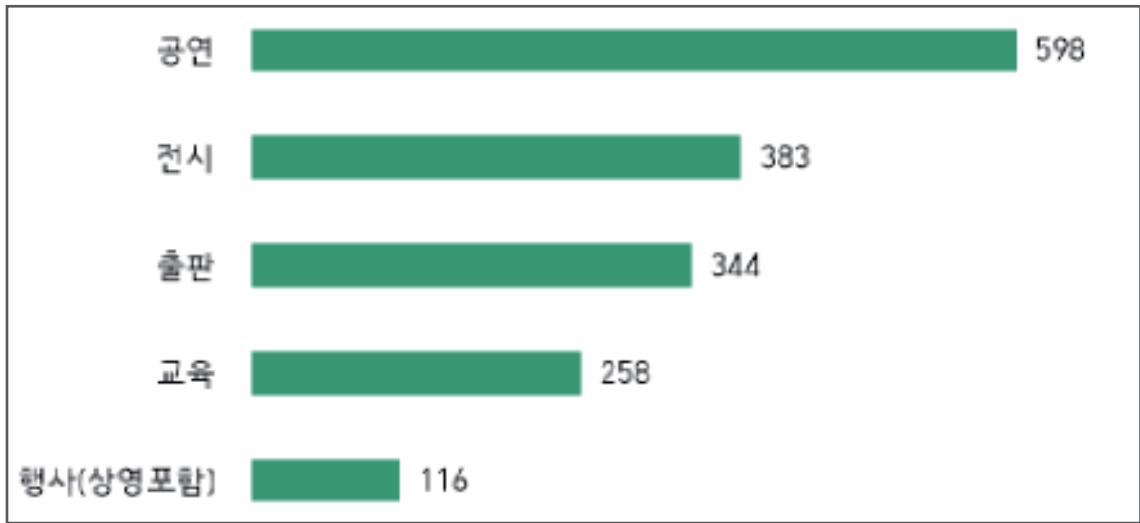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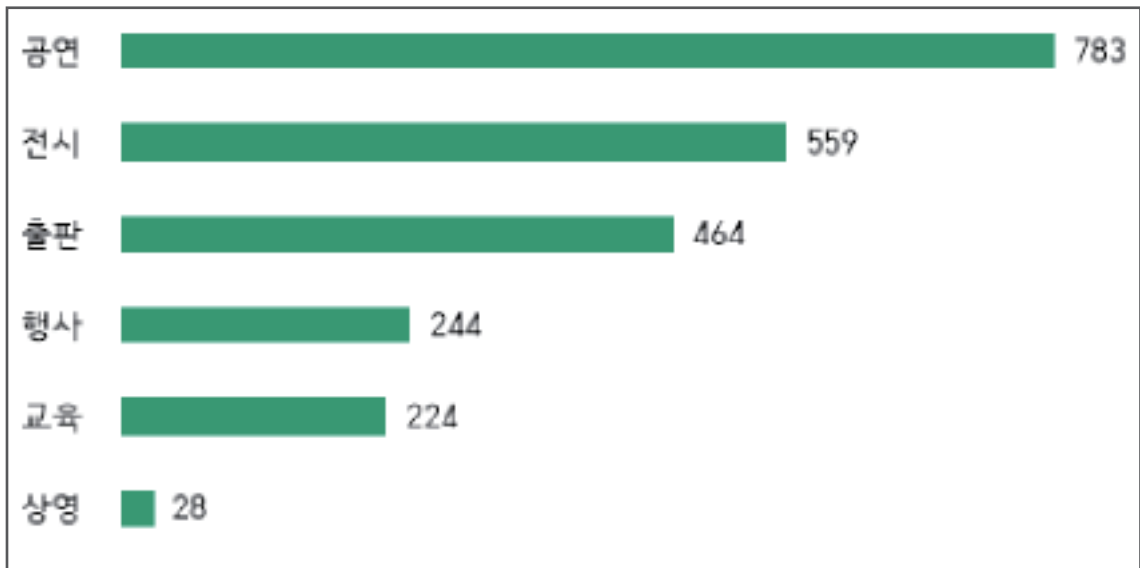


(2021년)

[표 17] 2020~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활동유형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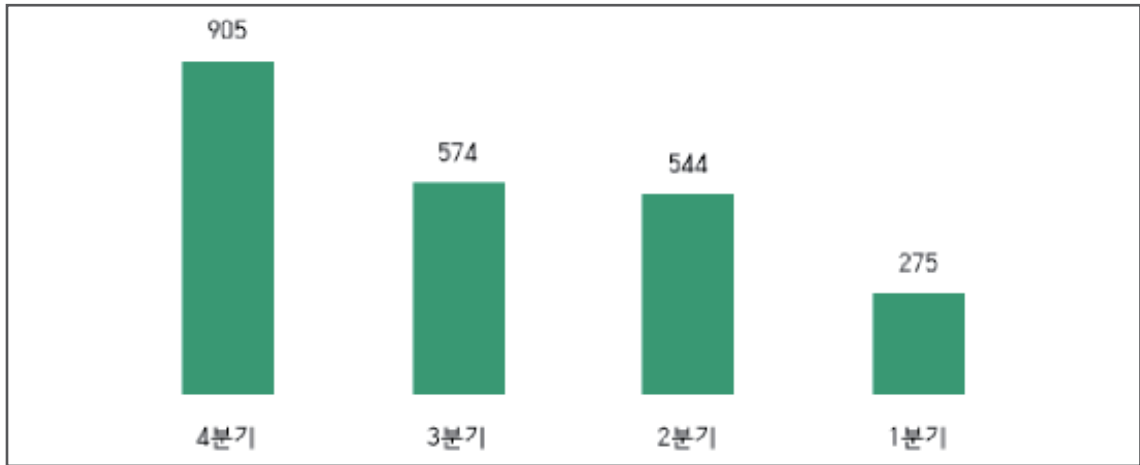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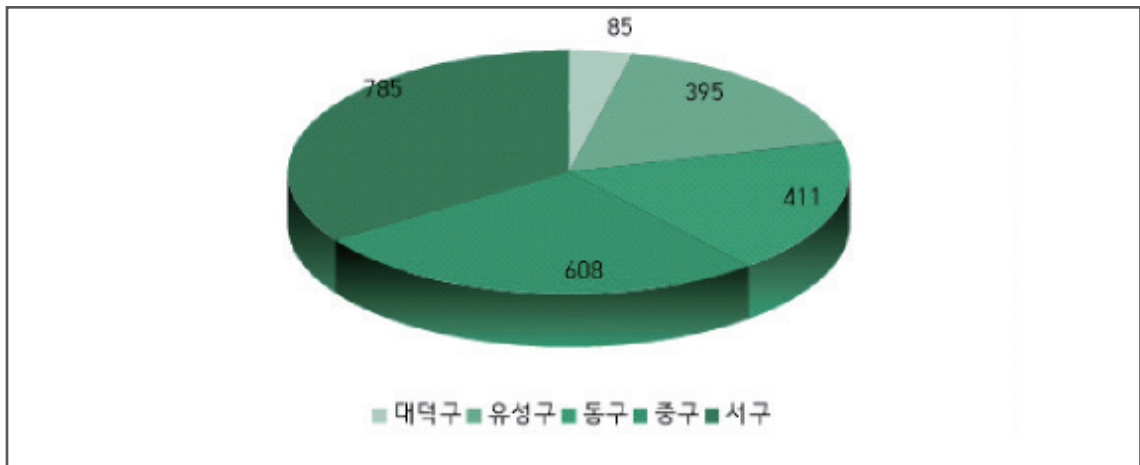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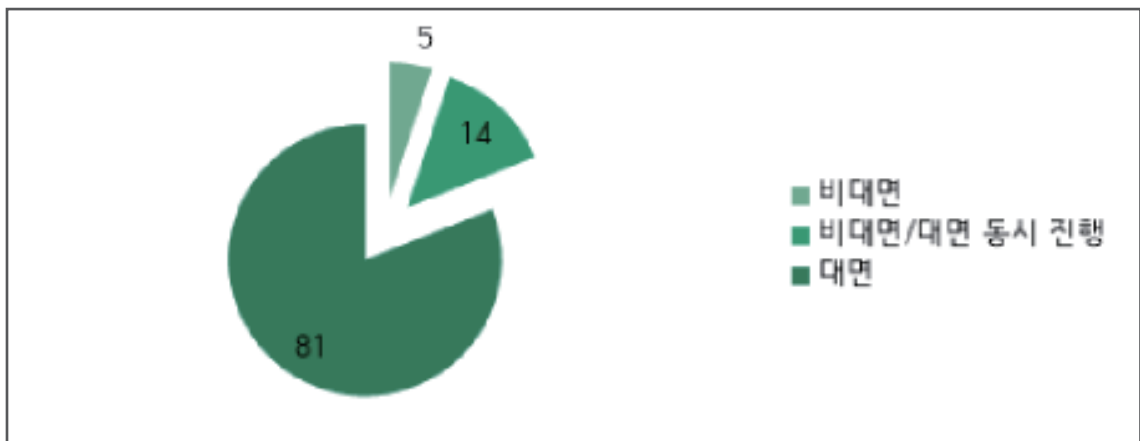
[표 18]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분기별 현황



[표 19]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자치구 현황



[표 20] 2021년 대전 문화예술 전체 활동 운영형태 현황



2. 문학 현황

■ 2021년, 문학 분야에서는 출판물 통한 창작 활동 외에도 교육, 행사,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505건의 활동이 문학 분야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2021년, 대전지역에서는 문학 창작 활동의 중심이 되는 출판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어 505건의 전체 문학 활동 가운데 435건의 활동이 출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주로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을 통해 진행되는 출판 활동 외에도 문학의 시, 소설, 수필 등의 분야에서는 교육, 행사, 공연, 전시 등의 70건의 활동이 개최되었음
- 민간주체가 주도하는 출판 활동과 달리 문학 분야의 교육, 행사, 전시, 공연 등과 같은 활동들은 주로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열었고, 전체 활동의 약 11%정도가 공공주체에 의하여 추진되기도 하였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문학 분야의 교육, 행사, 전시 등의 활동 가운데 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전체의 약 5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문학의 전체 활동 현황을 중분류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시 (284건)→혼합 (94건)→수필 (72건)→아동문학 (29건)→소설 (24건)→희곡·시나리오 (2건) 순의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음
- 출판을 포함한 문학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출판(435건)→행사 (49건)→교육 (13건)→전시 (5건)→공연 (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출판을 포함하여 문학 분야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208건)→3분기 (125건)→2분기 (119건)→1분기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일부 활동 내지는 발간 및 발간 주체의 소재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문학 분야에서 진행된 전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동구 (294건)→중구 (126건)→서구 (29건)→유성구 (24건)→대덕구 (12건) 순이었으며 20건은 미상이었음

■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분야는 출판 활동으로 435건의 활동이 있었음

- 435건의 활동이 진행된 출판 활동은 단행본뿐만 아니라 전자책, 문예지의 형태를 통해 진행되었음
- 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 희곡·시나리오, 혼합 분야를 총망라한 출판 활동 현황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단행본 발간 (282건)→전자책 발간 (74건)→문예지 발간 (79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단행본 발간 활동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시였으며 단행본 발간 활동 현황을 문학의 중분류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 (187건)→수필 (59건)→소설 (14건)→아동문학(19건)→혼합 (3건) 순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전자책 발간 현황을 문학의 중분류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시 (63건)→소설과 수필(각 5건)→아동문학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문학 분야의 발간 활동은 대부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혼합의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발간 활동을 보여준 출판사 현황을 정리해보면, 이든북 (99건)→시사랑음악사랑 (76건)→오늘의문학사(75건)→지혜의샘 (31건) 등의 순으로 출판 활동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자책의 경우, 단행본과 함께 발간한 경우도 있었고 전자책으로만 발간한 경우도 있었는데, 문학의 전체 분야에서 전자책만 발간한 경우는 1건이었고, 단행본과 전자책을 동시 발간한 경우는 73건이었음
- 74건의 전자책 가운데 전자책을 가장 많이 발간한 출판사 현황을 살펴보면, 시사랑음악사랑이 37 건, 이든북 출판사가 30건 등이었음
- 대전에서도 1인 출판사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인 출판사인 숲풀이 2건의 발간 활동을 보여주었음
- 희곡·시나리오 분야에서는 1건의 발간 활동도 없었고, 공모와 희곡 관련 행사 활동들만 있었음
- 문예지는 (정보 미상의 경우를 포함하여) 77건이 45개의 단체 또는 주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중 연간으로 발간하는 문예지가 가장 많았음
- 발간 횟수를 기준으로 문예지의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계간 (28건)→연간 (17건)→3회 발간 (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예지를 포함하여 전자책, 단행본 등 문학 분야의 전체 출판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70건)→ 3분기 (112건)→2분기 (104건)→1분기 (42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문학 분야의 전체 출판 활동 현황을 출판사 또는 발간 주체가 소재한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동구 (278건)→중구 (102건)→서구 (20건) →유성구 (9건)→대덕구 (6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학 분야의 행사 활동은 축제, 공모, 경연대회, 기념식, 북 콘서트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구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음

- 출판 활동 다음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것은 행사였음
- 문학 분야의 전체 행사 활동 현황을 활동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모 및 경연(16건)→북 콘서트 (8건)→축제 (6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 분야의 행사 활동은 주로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열렸는데, 전체 행사 활동 가운데 공공주체에 의한 활동이 6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대전 문학 축제>,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선포식> 등이 열린 중구에서 가장 많은 행사 활동이 진행되었음
- 문학 분야의 행사 활동이 진행된 전체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29건)→2분기 (11건)→3분기 (7건)→1분기 (2건) 순으로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다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구 (18건)→동구 (12건)→유성구 (8건)→서구와 대덕구 (각 5건) 순으로 열리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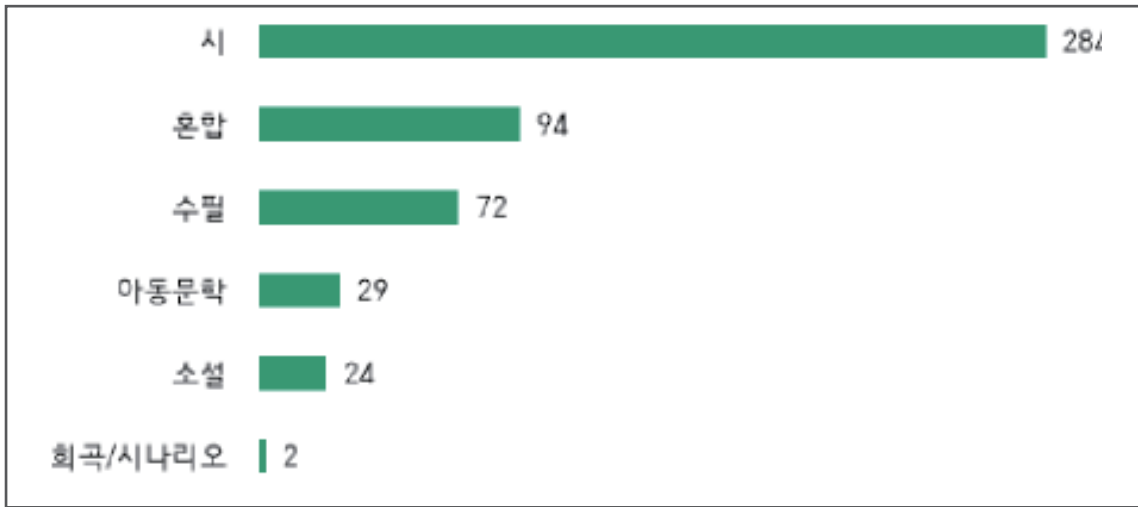
■ 문학 분야의 교육 활동은 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문학 분야 전체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13건이었음
- 문학 분야의 교육 활동 역시 행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주로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교육 활동을 보여준 분야는 아동문학과 혼합 분야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시와 소설 순이었음
- 이외에도 문학의 교육 활동은 다원예술의 탈분류와 다제간 활동 등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다원예술 분야에 집계하였음
- 순수 문학 교육을 포함하여 다원예술의 분야를 통한 문학 관련 교육들은 도서관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유성구에 소재한 도서관들에서 많이 진행되었음
- 교육 활동은 도서관 외에도 강연회나 <지역서점 활성화 아카데미>와 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관련 공간에서 열리거나 진행되기도 하였음
- 문학 분야의 교육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3분기 (5건)→4분기 (4건)→2분기 (3건)→1분기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문학 분야의 교육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유성구 (7건)→서구 (3건)→중구 (2건)→대덕구 (1건) 순으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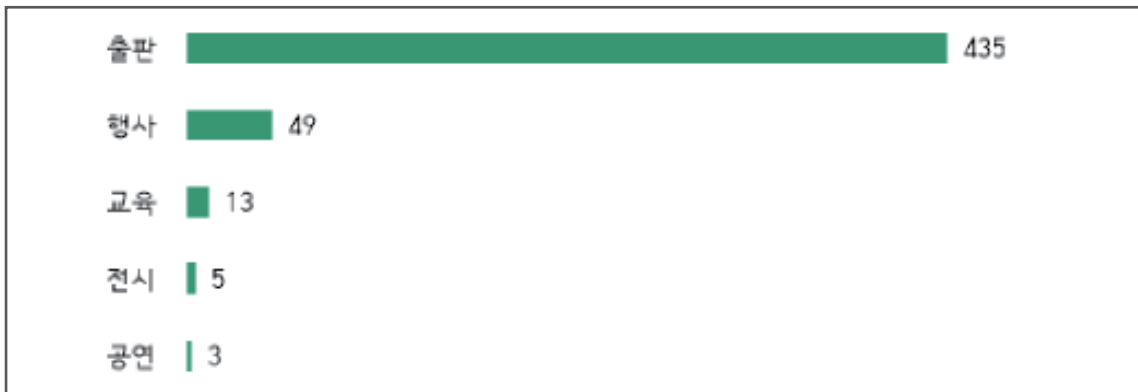
■ 이외에도 문학 분야의 활동은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진행되어 전시 5건, 공연 3건이 열리거나 개최되었음

- <송백헌 선생님 회고전-별은 담은 서재>, <시 확산 시민운동 아카이빙전-詩(시)앗, 싹트다> 등의 전시 5건이 개최되었음
- <여섯 개의 점으로 말하는 소리 친구 동화 구연 발표회>와 같이 시낭송회와 낭독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 활동이 3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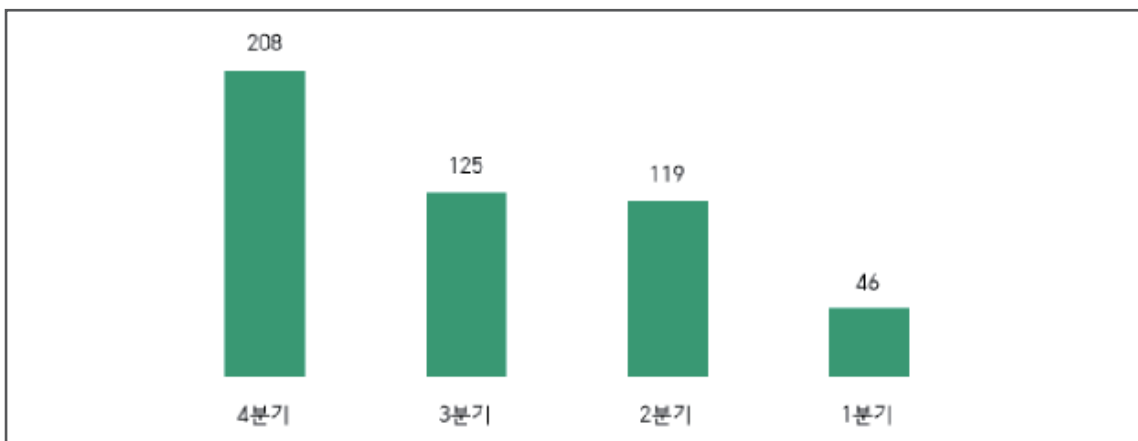
[표 21]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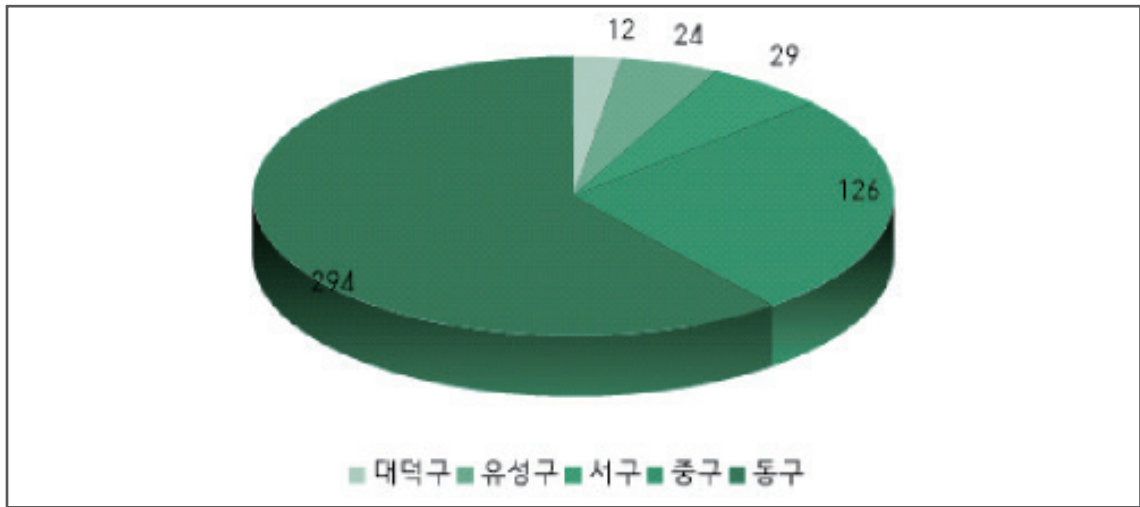
[표 22]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표 23]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분기별 현황



[표 24] 2021년 대전지역 문학 활동 자치구별 현황



1) 시

-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분야는 시 분야였고 단행본을 통한 출판 활동이 주를 이뤄 진행되었음
 - 284건의 활동이 진행된 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활동유형은 출판 활동을 통한 창작 활동이었음
 - 단행본 출판 이외에도 전자책 발간과 문예지를 통한 창작 활동이 출판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시 분야와 관련된 활동은 이외에도 행사, 교육, 전시 등을 통해 진행되었음
 - 시 분야와 관련된 출판 활동은 대부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교육 등에서 진행된 7건의 활동만이 공공주체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 분야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해보면, 출판 (273건)→행사 (6건)→전시와 교육 (각 2건)→공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시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15건)→2분기 (73건)→3분기 (68건)→1분기(28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출판 활동은 단행본 발간 이외에도 전자책과 문예지 발간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187건의 단행본 출판과 더불어 전자책 발간 활동이 63건 진행되었음
 - 63건의 출판물이 단행본과 전자책으로 동시 발간되었으며 1건의 시낭송집이 출판되기도 하였음

- 시 분야의 출판물을 가장 많이 발간한 출판사는 시음사(시사랑음악사랑)이었으며 76건의 출판물이 이곳을 통해 발간되었음
 - 문예지 발간 활동이 23건 진행되어 『시와 경계』, 『시와 정신』, 『대전의 시인들』 등과 같은 문예지가 발간되었음
23건 발간된 시 관련 문예지의 경우, 계간 형식이 12건이었으며 5건이 연간으로 발행되는 문예지였음
 - 시 분야 출판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단행본 발간 (187건)→전자책 발간 (63건)→문예지 발간 (23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시 분야의 출판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08건)→2분기 (73건)→3분기 (64건)→1분기 (28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시 분야 관련 행사, 교육, 전시 등의 활동이 공공주체가 운영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6건의 시 분야 관련 행사 활동이 열렸으며 시낭송과 관련된 행사가 중심을 이루며 공연,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진행되었음
 - 시 분야 관련된 전시가 2건 열려 <문학단체 소개전-시조로 걷는 숲길> 등이 대전문학관에서 개최되었음
 - 2건의 시 분야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 진잠도서관과 한밭도서관에서 진행되었음
 - 행사, 전시, 공연 등 출판물 제외 11건의 시 분야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에 7건, 3분기에 4건 진행되었고 1분기와 2분기에는 1건도 개최되지 않았음
 - 이를 자치구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동구 (7건)→중구 (3건)→유성구 (1건) 순으로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시 분야의 행사, 교육, 전시 활동은 대면 방식으로 7건 진행되었으며 3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1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열렸음

2) 소설

- 소설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 출판 활동 외에도 교육과 행사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24건의 활동이 소설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출판 활동을 통한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3건의 행사 활동이 소설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로 <과학 소재 장르문학 단편소설 공모전>이 개최되었으며 2건의 북 콘서트가 노은도서관과 월평도서관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음

- 소설 분야에서 민간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출판 활동 이외의 교육과 행사 활동들은 모두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추진되었으며 모두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개최되었음
- 소설 분야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출판 (20건)→ 행사 (3건)→ 교육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출판 활동은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 발간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20건의 출판물을 발간한 소설 분야의 출판 활동은 단행본 발간 (14건)→전자책 발간 (5건)→문예지 발간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전자책으로만 발간된 출판물과 더불어 임정원의 『경복』, 오수영의 『아무 날의 비행일지』 같은 소설이 전자책과 단행본으로 동시 발간되기도 하였음
- 10개의 출판사에서 20건의 소설을 발간하는 가운데 이든북에서 4건, 오늘의문학사에서 3건의 소설이 발간되었음
- 1인 출판사인 숲풀이 『그대의 밤과 세계의 교차점』을 발간하기도 하였음
- 소설 분야의 출판물이 발간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8건)→3분기 (5건)→2분기 (4건)→1분기 (2건)→미상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3) 수필

□ 수필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 출판 활동과 더불어 행사, 교육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72건의 활동이 진행된 수필 분야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출판 (67건)→행사 (5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5건이 진행된 행사 활동의 경우, 3건의 북 콘서트와 1건의 공모, 1건의 강연 활동이 진행되었음
- 5건이 진행된 수필 분야의 행사 활동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2 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3건이 개최되었음

□ 수필 분야의 출판 활동은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를 통해 진행되었음

- 수필 분야의 출판 활동은 모두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해 진행되었음
- 67건의 출판 활동이 진행된 수필 분야의 출판 활동은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의 발간을 통해 진행되었음
- 이를 활동형태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단행본 발간 (59건)→전자책 발간 (5건)→문예지 발간 (3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김복희의 『얼음새』가 전자책과 단행본으로 동시 발간되었음
- 가장 많은 수필 관련 발간 활동을 보여준 출판사는 18건의 출판 활동을 진행한 이든북이었으며 오늘의문학사에서 16건의 수필이 발간하였음
- 대전수필문학회의 문예지, 『수필예술』과 한밭수필가협회의 문예지, 『한밭수필』등이 발간되었음
- 수필 관련 출판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4분기 (27건)→3분기 (22건)→2분기 (14건)→1분기 (4건) 순으로 진행되었을 알 수 있었음

4) 아동문학

-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출판, 교육, 행사, 공연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출판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29건의 전체 활동이 있었으며 출판 활동을 통한 활동이 가장 많았음
 - 아동문학 분야의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출판 (21건)→교육 (5건)→행사(2건)→공연 (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아동문학 분야의 활동을 활동 주최 및 주관별로 살펴보면, 출판은 주로 민간주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행사와 공연 등의 활동은 공공주체에 의해 주로 주최되거나 주관되어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아동문학 분야의 교육과 행사 활동은 모두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성구에 소재한 도서관들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음
- 아동문학 분야의 출판 활동은 단행본과 전자책, 문예지 발간 활동을 통해 21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아동문학의 출판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단행본 발간 (19건)→전자책과 문예지 (각 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아동문학의 단행본 발간을 가장 많이 진행한 출판사는 이든북과 트윙클티비였으며 두 출판사에서는 각각 5건의 아동문학 서적을 발간하였음
 - 아동문학의 유일한 전자책은 단행본과 함께 발간한 이휘택의 『춤추는 바람개비』이었음
 - 한밭아동문학가협회에서 연간 문예지, 『한밭아동문학 제22호』를 발간하였음
 - 아동문학의 출판 활동을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3분기 (8건)→4분기 (6건)→1분기 (4건)→2분기 (3건) 순으로 집계됨

5) 희곡 시나리오

- 희곡·시나리오 분야에서는 출판 활동이 없었으며 그 밖의 활동으로 2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희곡·시나리오 분야에서는 공모와 공연 활동이 각각 1건씩 열려 2건의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건의 활동은 서로 연동된 활동이기는 하나, 1건은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최한 <제13회 대전 창작희곡 공모> 활동이었으며 다른 1건은 상상아트홀에서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최한 <제13회 대전 창작희곡 공모 수상작 리딩시어터>이었음

6) 혼합

- 소설, 시, 수필 등의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활동한 혼합 분야는 출판을 비롯하여 교육, 행사, 공연, 전시 활동 등이 94건 진행되었음
 - 혼합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출판 (54건)→행사 (32건)→교육 (5건)→전시 (3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활동 중에서는 행사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들은 <서구 힐링 북페스티벌>, <2021 대전문학축제-금강 물빛으로 흐르는 문학의 숨결> 같은 축제 외에도 낭독회, 공모, 경연대회, 기념식 등의 다양한 활동형태로 진행되었음
 -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들을 활동형태로 나눠 정리해보면, 축제 (6건)→공모 및 경연 (11건)→시상식과 기념식 (4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5건의 교육 활동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것 외에도 소셜 캠퍼스 온 대전과 같은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테미오래의 <문학레지던시 결과 보고 전시, 섬과 숲>, 대전문학관의 <송백헌 선생 회고전-별을 담은 서재> 등과 같은 전시가 열리기도 하였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혼합 분야의 교육, 행사, 전시 등의 활동은 19건이 대면 방식으로, 13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6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그리고 미확인이 2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출판 활동을 포함하여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모든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43건)→2분기 (21건)→3분기 (17건)→1분기 (7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소설, 시, 수필 등의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활동한 혼합 분야의 출판 활동은 주로 문예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문학의 여러 갈래가 서로 결합하거나 연계하여 진행된 혼합 분야의 출판 활동은 54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문예지가 51건 발간되었음
 - 혼합 분야의 출판 활동은 문예지 외에도 단행본을 통해서도 진행되어 한국문학작가연합의 문집과 『제4회 광수문학상 수상 작품집』 등 같은 3건의 단행본이 출판되었음
 - 혼합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간 활동이 진행된 것은 문예지 활동이었는데, 『대전 PEN 문학』, 『대전여성문학』, 『호서문학』, 『e-백문학』 등이 문예지를 발간하였음
 - 『해외문학』, 『상상의힘』, 『서구문학』 등 같이 정확한 발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는 문예지를 제외한 혼합 분야의 문예지 발간 현황을 발간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간 (16건)→연간 (8건)→반년 (6건)→반년간 (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19건)→3분기 (12건)→2분기 (10건)→1분기 (4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6건은 미확인되었음

3. 공연예술 현황

- 2021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복합의 5분야에서 진행된 공연예술 활동은 823건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은 공연예술의 각 분야 활동 외에도 시각예술, 문학 등 다른 분야와 결합된 다원예술적 형태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황은 다원예술에 집계되어 있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주체별로 나눠 살펴보면, 공공주체가 추진하여 진행된 활동은 260건으로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약 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주체 또는 민간과 공공주체 공동에 의한 활동은 전체 활동의 68% 정도에 해당하는 563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 진행 현황을 점검해보면, 대면 방식의 활동은 전체의 88% 정도에 해당하는 722건이 진행되었으며 6%에 해당하는 50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거나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도서관에서 개최된 활동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며 교육 외에도 공연, 행사 등의 활동이 도서관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펼쳐진 지역은 서구였으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시설은 대전예술의전당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음악(454건)→연극(161건)→국악(109건)→복합(54건)→무용(4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공연(754건)→행사(44건)→교육(25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538건)→중구(145건)→유성구(57건)→대덕구(48건)→동구(3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이 가장 많이 열린 달은 11월로 125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렸음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340건)→2분기(207건)→3분기(172건)→1분기(104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2021년,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체 공연 활동은 754건이었으며 음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의 전체 공연 활동 가운데 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668건으로 이는 전체 활동의 약 89%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함
- 공연예술의 전체 공연 활동 중 공공주체가 진행하거나 주관한 경우는 62% 정도를 차지하는 467건이었고, 공공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주관된 활동은 229건이었음
- 공연예술의 전체 공연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기관 또는 단체는 대전예술의전당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대전예술기획, 공연기획 피움, 유진예술기획 등이 많은 공연 활동을 주관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뮤지컬공연을 비롯하여 인형극 등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중 친화적인 성격의 공연 활동이 도서관 등지에서 많이 열렸음
- 공연예술의 공연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음악(424건)→연극(153건)→국악(101건)→복합(46건)→무용(30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기악공연, 성악공연, 극공연, 혼합공연 등으로 진행된 공연예술의 전체 현황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기악공연(353건)→혼합공연(136건)→(무용극 포함)극 공연(86건)→성악공연(74건)→뮤지컬공연(54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공연예술의 행사 활동은 주로 축제와 혼합공연 형태로 열렸으며 전통적인 방식에 바탕을 두는 행사 활동 외에도 대중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진행된 행사 활동도 많이 개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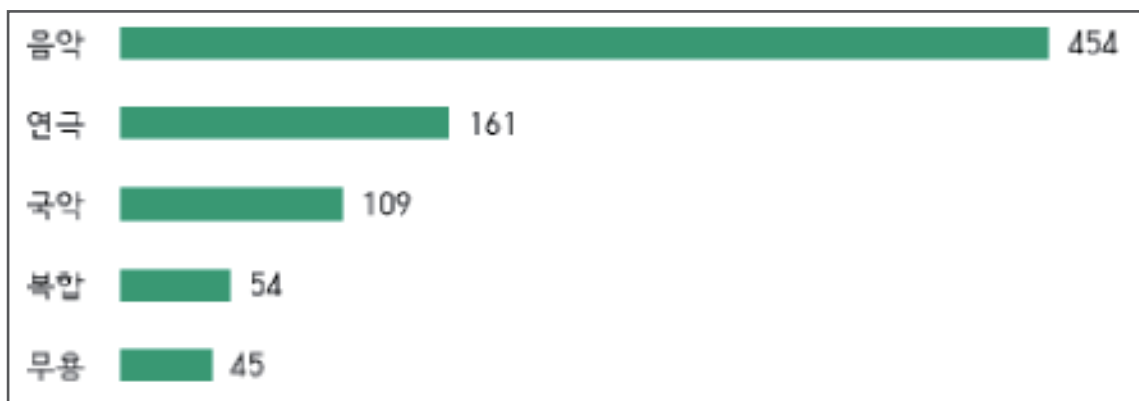
-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대전 국제 음악제> 등 2021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되어 진행된 공연예술 관련 행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동시에 <대전 인디음악 축전> 등 몇몇 행사들은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며 공연예술의 진행과 참여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젊은 세대들을 겨냥하는 동시에 대중 친화성을 갖춘 <2021년 전국 실용댄스 경연대회>, <제1회 2021 우승 힙합 페스티벌> 등이 새롭게 개최되기도 하였음
- 공연예술의 행사 활동은 공연시설 또는 관련 장소 외에도 대청호 일대, 우암사적공원, 대전시청 광장, 보라매공원 등과 같은 관객의 방문과 참여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내지는 공간을 활용하여 개최되기도 하였음
- 공연예술의 전체 행사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주체보다는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 더 많았으며 전체 행사 활동의 66% 정도가 민간주체에 의해 추진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연예술의 전체 행사 활동이 진행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6건)→3분기 (14건)→2분기 (11건)→1분기 (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 전체 행사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 (18건)→중구(17건)→동구 (6건)→유성구 (2건)→대덕구 (1건)→동구 (6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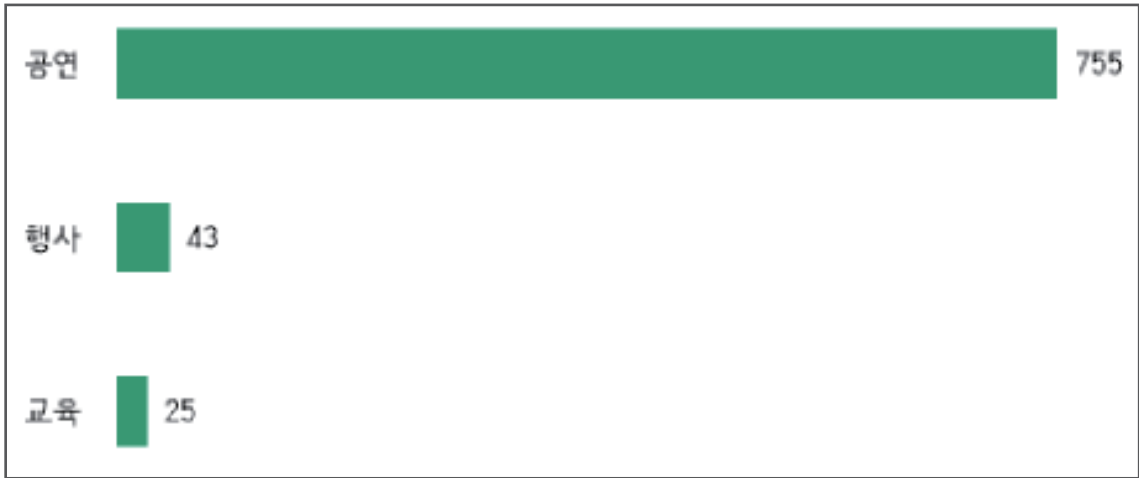
■ 2021년,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주로 도서관과 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25건이었으며 도서관 또는 문화원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이 17건으로 전체 교육 활동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 중 교육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는 음악이었으며 공연예술에서 진행된 전체 교육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동구 (13건)→중구 (7건)→서구 (3건)→대덕구와 유성구 (각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연예술 전체 분야에서 교육 활동이 가장 많았던 달은 4월이었고, 공연예술의 교육 활동 전체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 (17건)→1분기와 4분기 (각 3건)→3분기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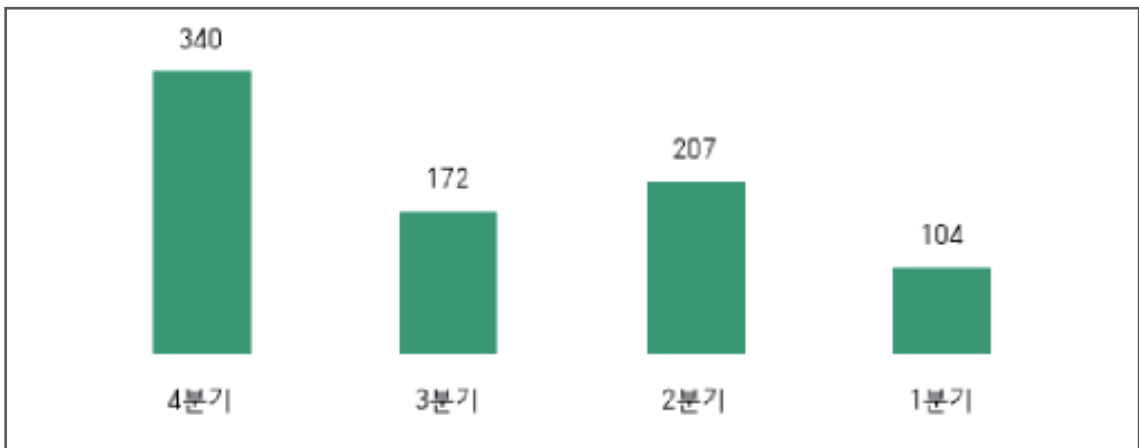
[표 25]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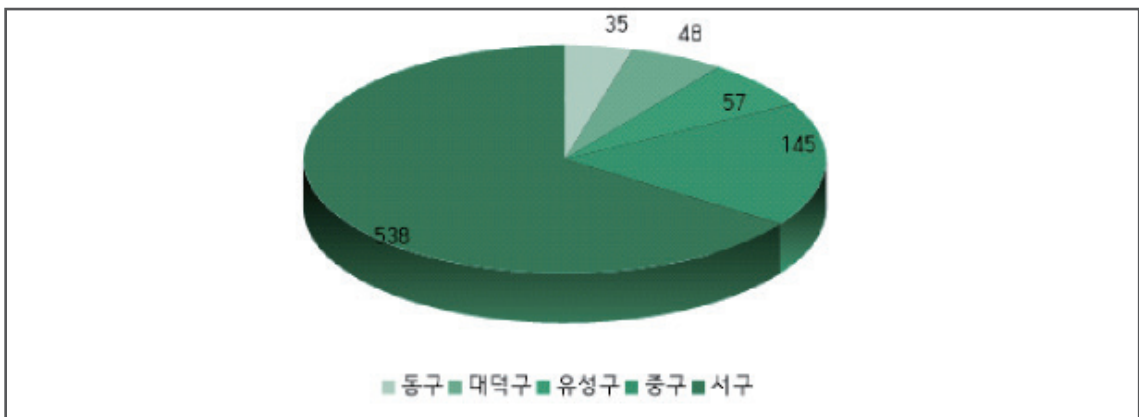
[표 26]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표 27]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표 28] 2021년 대전지역 공연예술 활동 자치구별 현황



1) 국악

- 성악과 기악, 극, 혼합공연과 함께 행사, 교육 등의 활동이 진행된 국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을 보여준 활동형태는 기악공연이었음
 - 공연 외에도 행사,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국악 분야의 전체 활동은 109건이었음
 - 이중 가장 활발히 진행된 분야는 공연 활동이었으며 극, 성악, 기악, 혼합 공연을 통한 101건의 공연 활동이 진행되었음
 - 국악 분야에서는 공연 외에도 교육과 행사 활동이 각각 5건과 3건씩 진행되었음
 - 국악 분야의 전체 활동의 약 82%에 해당하는 89건의 활동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비대면 방식으로는 8건, 그리고 12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국악 분야의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장소들을 살펴보면, 단 2건만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에서 열렸음
 - 국악 분야의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46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추진한 54건,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9건이었음
 - 국악 분야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52건)→2분기 (25건)→3분기 (24건)→1분기 (8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들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서구 (59건)→대덕구 (27건)→중구 (18건)→동구 (4건)→유성구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국악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공연 활동 가운데 47% 정도에 해당하는 활동이 기악 공연 활동이었음
 - 국악 분야의 전체 공연 활동 가운데 약 32% 정도에 해당하는 32건이 재공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초연으로 진행된 공연 활동은 69건이었음
 - 1건에 그친 극공연은 초청 공연이었으며 국립창극단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진행한 창극 공연, 〈변강쇠 점 찍고 웅녀〉이었음
 - 국악 분야의 공연 활동은 대부분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전체 공연 활동의 76%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서구문화원 아트홀 등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Storytelling 우화와 빛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연주회, 어둠 속의 빛: 돌을별〉 등 3건의 공연 활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대흥동 고당마당과 목원대학교 콘서트홀 등에서 진행되었음

- 타악그룹 판타지가 <타악그룹 판타지×풍악광대예술단 두드림의 미학>, <타악그룹판타지 풍류산방 취樂벼樂> 등 5건의 공연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민간주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음
 - 국악 분야의 공연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 활동 전체 가운데 약 40% 정도가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었고, 51% 정도에 해당하는 52건이 타악 그룹 판타지, 모꼬지, 에이도스 등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었으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9건이었음
 - 국악 분야의 전체 공연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기악공연 (47건)→혼합공연 (43건)→성악공연 (10건)→극공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국악 분야에서 진행된 공연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51건)→3분기 (24건)→2분기 (19건)→1분기 (7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이 개최되었고, 1월과 2월 가장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다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서구 (58건)→대덕구 (26건)→중구 (16건)→유성구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연 외에도 국악 분야에서 8건의 교육과 행사 활동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개최되었음
- 국악 분야에서는 5건의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대전동구문화원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음
 - 대전동구문화원에서 4월에 열린 교육 활동 4건은 12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기간의 교육 활동이었음
 - 국악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은 3건이었으며 6월에 2건, 10월에 1건 진행되었음
 - 국악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은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진행된 <제29회 대전 전국국악 경연 대회>,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대전 舞(무), 樂(악)연희축제> 등이었음

2) 무용

- 45건의 활동이 진행된 무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공연 활동이었음
- 공연을 비롯하여 교육과 행사 활동을 통해 진행된 무용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전체의 76% 정도를 차지하는 34건이었음
 - 무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개최된 곳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전예술가의집, 관저문예회관 등지에서 활동이 진행되었음

- 무용 분야의 전체 활동은 대부분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열리거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사 에스파놀>, <명무들의 한바탕, 명작을 그리다 2021 열한 번째 이야기> 등 4건의 활동만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개최되거나 진행되었음
 - 무용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13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추진한 활동은 24건이었고, 8건이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었음
 - 무용 분야에서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해보면, 공연 (30건)→행사 (9건)→교육 (6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무용 분야의 전체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9건)→2분기 (16건)→3분기 (8건)→1분기 (2건) 순으로 나타났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서구 (25건)→중구 (13건)→동구 (4건)→대덕구 (3건) 순이었으며 유성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무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공연 활동 중 한국무용 공연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 30건의 활동이 진행된 무용 분야의 공연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한국무용 (23건)→서양무용과 무용극공연 (각 3건)→현대무용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됨
 - 무용 분야에서 진행된 30건의 공연 활동 중 25건이 초연으로 열린 활동이었으며 재공연으로 진행된 활동은 5건이었음
 - 무용 분야의 공연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거나 열린 곳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소극장 고도, 쏘울브릿지 등에서도 공연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리기도 하였음
 - 무용 분야 공연 활동은 모두 단체 공연 형태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는데, 관저문예회관의 상주공연단체인 이정애무용단은 4건의 공연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정은혜민족무용단은 3건의 공연 활동을 진행하였음
 - 무용 분야의 공연 활동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된 공연 활동은 이정애무용단이 주최하고 관저문예회관 공연장에서 15일간 6차례 진행한 <춤추는 레트로>였음
 - 무용 분야에서는 10월에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이 있었으며 3월과 8월에는 공연 활동이 없었음
 - 무용 분야의 공연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4분기 (16)→2분기 (9건)→3분기 (3건)→1분기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다시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21건)→중구 (6건)→대덕구(3건) 순이었으며 유성구와 동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무용 분야에서는 <2021년 전국 실용댄스 경연대회>, <대전춤작가전>, <대전 전국 댄스 페스티벌> 등 9건의 행사 활동이 개최되었음

- 무용 분야의 행사 활동은 축제, 경연대회, 혼합공연 등의 활동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활동형태로 나눠 살펴보면, 축제 (5건)→경연 (3건)→혼합공연 (1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무용 분야의 행사 활동 중 경연대회 형태의 행사가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주관되어 진행되었는데, 대전대학교가 주최한 <2021년 전국 실용댄스 경연대회>와 대전무용교육협회가 주최한 <전국 무용 경연대회>는 전국 규모로 열린 행사였음
- 21세기 현대무용 연구회가 9월, 개최한 <2021 제20회 대전 뉴 댄스 페스티벌>은 29일간 11차례의 공연을 대전예술가의집 등에서 개최하였음
- 무용 분야의 행사 활동 중 7건의 활동이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었으며 공공주체가 1건,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1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무용 분야의 행사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3분기 (4건)→2분기 (3건)→4분기 (2건) 순이었으며 1분기에는 1건도 열리지 않았음
- 무용 분야의 행사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구 (5건)→서구 (3건)→동구 (1건) 순으로 열렸고 대덕구와 유성구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무용 분야에서는 6건의 교육 활동이 있었으며 4건의 활동이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이었음

- 무용 분야의 교육 활동 중 5건이 체험형으로 열렸으며 1건이 강의형으로 진행되었는데, 정은혜민족무용단이 주관한 <십무 영상 프로젝트>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무용 분야의 교육 활동으로 열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21 춤으로 만드는 세상>이 4월에서 12월 사이 225일간 진행되어 무용 분야에서 가장 긴 활동 기간을 보여주었음

3) 연극

□ 극공연, 마임공연, 뮤지컬공연, 오페라공연 등의 공연 활동과 더불어 행사, 교육 활동이 함께 진행된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은 161건이었음

- 연극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열리거나 진행된 곳은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이었으며 이곳에서는 14건의 연극 분야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진행되거나 열린 경우는 전체 활동의 약 41%에 해당하는 66건이었으며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열리거나 진행된 경우는 95건으로 전체 활동 중 5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중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52건이었고, 민간주체가 추진한 경우는 104건이었으며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는 5건이었음
-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전체 활동의 91%에 해당하는 146건이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 활동의 8%를 차지하였으며 1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161건의 활동이 진행된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해보면, 공연 (153건)→행사 (6건)→교육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 (62건)→서구 (48건)→유성구 (36건)→동구 (10건)→대덕구 (5건) 순이었음
- 12월 중에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연극 분야의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4분기 (73건)→3분기 (39건)→2분기 (38건)→1분기 (1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극 분야의 공연 활동이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공연 관련 전문 시설 외에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극공연을 비롯하여 뮤지컬공연과 오페라 공연, 마술공연 등이 개최되었음
- 연극 분야의 공연 활동 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139건이었고, 13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연극 공연의 공연 활동 중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98건이었고, 공공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주관된 활동은 51건이었으며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활동은 4건이었음
- 연극 분야의 공연 활동 중 가장 많은 공연을 진행한 기관은 대전예술의전당이었음
- 이외에도 민간주체인 극단 새벽이 5건을 주최·주관하였고 소극장 고도에서 13건이 개최되었음
- 연극 분야의 공연 활동 중 가장 긴 일정으로 진행된 활동은 아신극장에서 80일간 97회의 공연을 진행한 <나의 완벽한 로맨스>였음
- 뮤지컬공연 중에는 <알라딘과 요술램프>가 조이마루아트홀에서 65일간 63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된 공연이었음
- 뮤지컬공연은 공연시설 외에도 도서관에서 많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도서관에서 개최된 뮤지컬공연 활동은 6건이었으며 관평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열렸음
- 연극 분야의 공연 활동 중 라이브스크린을 도입한 <NT Live. 햄릿>과 <찰리 채플린과 폴리의 라이브 스크린>이 개최되었고 이머시브 공연으로 진행된 <남간정사우암여행>이 열린 점을 실험적인 활동을 도입한 대표적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 중 96%를 차지한 공연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극공연 (80건)→뮤지컬공연 (54건)→오페라공연 (10건)→마술공연 (7건)→마임공연 (2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 (55건)→서구 (47건)→유성구(36건)→동구 (10건)→대덕구 (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12월 중에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연극 분야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4분기 (72건)→3분기 (36건)→2분기 (35건)→1분기 (10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극 분야에서는 공연 활동 외에도 6건의 행사 활동이 개최되었음

- <대전 청소년 연극제>, <대전 청년 유니브 연극제>, <대전 ART마임 페스티벌> 등 6건의 행사 활동이 진행되었음
- 연극 분야의 행사 활동은 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9월에 2건의 행사 활동이 개최되었음
- 연극 분야의 행사 활동은 대부분 중구에서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연극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활동은 2건 진행되었음

- 극단 이화 연습실 봄이 대전상상아트홀에서 연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 쿠나>는 5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또 다른 1건은 꿈다락 문화학교 프로그램이었음

4) 음악

□ 공연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55%에 이르는 활동이 진행된 음악 분야는 공연예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펼쳐진 분야이기도 한 동시에 전체 문화예술 활동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분야이기도 함

-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 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90%를 조금 넘는 409건이었으며 5% 정도인 24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이 21건 진행되었음
-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곳은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음악 분야의 활동은 주로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장소에서 진행되거나 많이 개최되었음
- 전체 음악 활동 가운데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119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진행한 경우는 295건으로 집계되었음
- 454건의 활동이 진행된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연 (424건)→행사 (19건)→교육 (1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4분기 (175건)→2분기 (118건)→3분기 (86건)→1분기 (75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 (368건)→중구 (45건)→유성구 (20건)→동구 (15건)→대덕구 (6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공연 활동이었으며 음악 분야의 전체 활동 중 93%에 이르는 활동이 공연 활동으로 진행되었음
- 거미, 장윤정 등과 같은 대중가수와 음악 공연이 9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음악 분야의 공연 활동 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는 385건이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22건이었으며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열린 경우는 17건이었음
 - 음악 분야의 공연 활동은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경우는 106건이었으며 민간주체가 진행한 활동은 284건, 공공과 민간주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활동은 34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지영 피아노 독주회>, <신성희 바이올린 리사이틀>, <에라토 10주년 기념 음악회> 등 136여 건의 공연이 개최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개최되어 음악 분야의 공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다음으로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73여 건,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43여 건, 대전시청하늘마당에서 27여 건 등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음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아트브릿지에서는 <피아니스트 황승연 리사이틀>, <허지율피아노 독주회>, <앙상블 슈에프 정기연주회>와 같은 37여 건의 공연 활동이 진행되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이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음악 분야의 공연 활동 전체 현황을 활동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기악공연 (304건)→성악공연 (64건)→혼합공연 (45건)→대중음악 (9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음악 분야의 공연 활동은 11월에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 분야에서 진행된 공연 활동 전체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61건)→2분기(108건)→1분기 (79건)→3분기 (76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 (358건)→중구 (38건)→유성구 (17건)→동구 (6건)→대덕구 (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 대전국제음악제>, <2021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창작대중음악제> 등과 같은 행사 활동이 음악 분야에서 개최되었음
- 19건의 행사 활동이 진행된 음악 분야에서는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한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등이 다시 개최되었으며 비대면 형식으로 치러진 <대전국제음악제>가 대면 형식으로 다시 전환되어 열렸음

- 음악 분야의 행사 활동은 주로 축제 형태로 개최되었는데, 음악 분야의 행사 활동 현황을 활동 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축제 (15건)→경연 (2건)→공연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 분야의 행사 활동은 13건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4건이 개최되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중지된 행사 활동이 대면 방식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2020년, 개최되지 못한 <대청호 대덕뮤직 페스티벌> 등과 <2021 토토즐 페스티벌> 등과 같은 행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제1회 2021 우승 힙합 페스티벌>, <대전 재즈 페스티벌>, <창작 대중음악 예술제>, <2021 대전 인디음악 축전> 등과 같은 대중음악 관련 행사가 축제 형태로 개최되었음
 - <찾아가는 추억의 효문화 콘서트>, <샤이니스타 경연>의 대전 예선전 등 장년층과 노년층 세대를 위한 축제 형태의 행사 활동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음악 분야의 행사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9건)→3분기 (6건)→2분기 (3건)→1분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 (8건)→동구와 중구 (각 4건)→유성구 (2건)→대덕구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 분야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11건이었으며 기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활동이 많았음
-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캠프>, <Amore Party×카혼의 만남>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이 음악 분야에서 진행되었음
 - 음악 분야의 교육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 (6건)→1분기와 4분기 (각 2건)→3분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음악 분야의 교육 활동은 문화원에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동구 (5건)→중구 (3건)→서구 (2건)→유성구 (1건)순이었으며 대덕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5) 복합

- 국악, 무용, 음악, 연극 등의 공연 분야가 서로 연계하여 진행한 복합 분야의 활동은 54건이었음
- 54건의 활동이 진행된 복합 분야에서는 공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복합 활동의 전체 현황 가운데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활동은 44건이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2건이었으며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8건이었음
 - 복합 분야의 전체 활동 중 공공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경우는 30건이었고,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경우는 20건이었으며 민간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는 4건이었음
 - 복합 활동의 전체 활동 가운데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진행된 경우는 49건이었으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가장 많이 열렸음
 - 공연예술의 복합 분야에서 진행된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해보면, 공연 (46건)→행사 (7건)→교육 (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복합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4분기 (21건)→3분기 (15건)→2분기 (10건)→1분기 (8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 (38건)→대덕구 (7건)→중구 (7건)→동구 (2건) 순이었으며 유성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과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복합 분야의 공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신년음악회 ‘벽사진경’〉, 〈전통민속놀이 정월대보름 행사〉, 〈2021 단오 국악 한마당〉, 〈차세대 유망주 콘서트〉,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 등 국악과 음악, 국악과 무용, 무용과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된 복합 분야의 공연 활동은 46건이었음
 - 이를 활동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혼합공연 (42건)→기악공연과 극공연 (각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복합 분야의 공연 활동은 민간주체보다 공공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주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았음
 - 복합 분야의 공연 활동 가운데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38건이었고, 1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는 7건이 개최되었음
 - 복합 분야의 공연 활동 전체를 분기별로 나눠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4분기 (18건)→3분기 (14건)→1분기와 2분기 (각 7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구 (33건)→대덕구 (7건)→중구 (6건) 순으로 열렸으며 동구와 유성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공연과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복합 분야의 행사 활동은 7건이었음
- 〈2021 대전, 우리소리 축제 하하하!〉와 〈들썩들썩 인 대전〉 등과 같은 3건의 혼합공연과 3건의 축제 형태로 복합 분야의 행사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경연대회가 1건 있었음
 - 복합 분야의 행사 활동 현황을 운영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대면 5건→비대면 방식과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 (각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복합 분야의 행사 활동은 서울브릿지와 같은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1곳을 제외하면, 모두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열렸음
 - 복합 분야의 행사 활동이 가장 많이 열린 자치구는 서구였음

4. 시각예술 현황

■ 2021년 시각예술 활동은 전시를 비롯하여 행사, 출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하여 678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2021년,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시각예술 분야는 회화였으며 다음으로는 혼합이었음
- 2021년에 눈여겨볼 만한 분야는 사진 분야의 활동이었으며 사진 분야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된 활동 건수는 112건이었음
- 2021년 진행되거나 열린 시각예술의 활동을 민간주체와 공공주체로 나눠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약 67% 정도를 민간주체가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된 장소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시각예술 전체 활동의 51% 정도에 해당하는 344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시각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눠 파악해 보면, 대면 방식으로 579건, 비대면 방식으로는 54건이 진행되었으며 16건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치러진 것으로 집계되었음
- 시각예술 전체 활동 현황을 중분류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회화 (237건)→혼합(151건)→사진 (112건)→공예 (62건)→서예 (53건)→디자인 (25건)→조각·설치(21건)→뉴미디어 (8건)→건축 (5건)→드로잉 (3건)→판화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 전체 분야가 진행된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시 (532건)→행사 (52건)→교육 (69건)→출판 (24건)→공연 (1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253건)→2분기 (166건)→3분기 (162건)→(2020년에서 이어지는 활동을 포함한) 1분기 (97건) 순으로 개최되거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 (264건)→유성구 (189건)→서구 (156건)→동구 (57건)→대덕구 (12건) 순으로 나타나 중구에서 가장 많은 시각예술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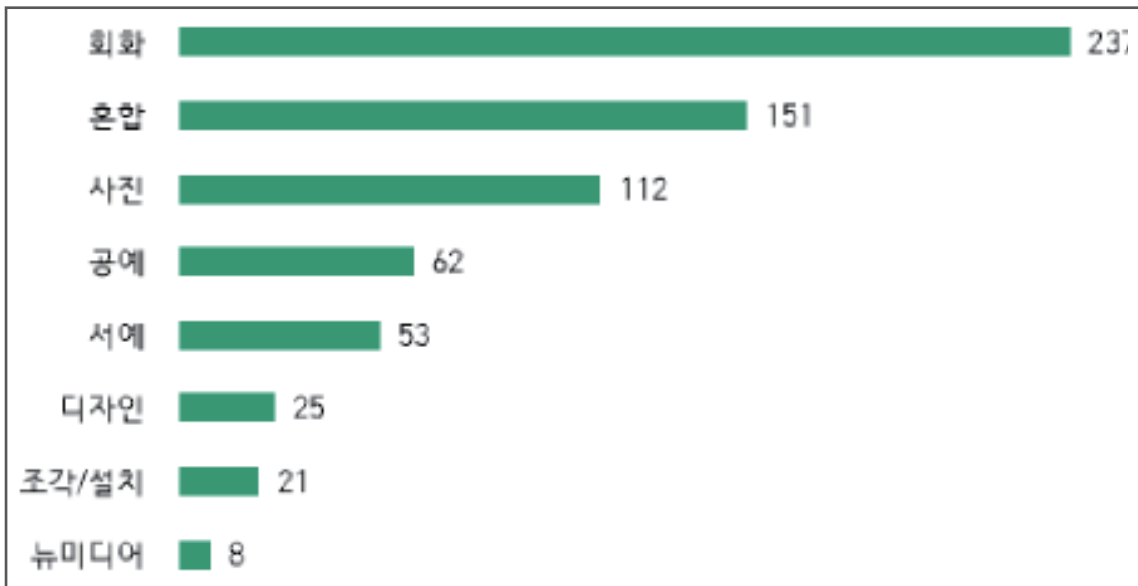
■ 2021년 시각예술의 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은 전시 활동이었으며 가장 많이 개최된 분야는 회화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전체 분야에서 열린 전시 활동은 532건이었으며 시각예술에서 진행된 여러 활동유형 가운데 78%를 차지하였음
- 시각예술의 전체 전시 활동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524건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시각예술의 전체 전시 활동 가운데 약 58%에 이르는 307건이 단체전시 형태로 개최 되었으며 225건이 개인전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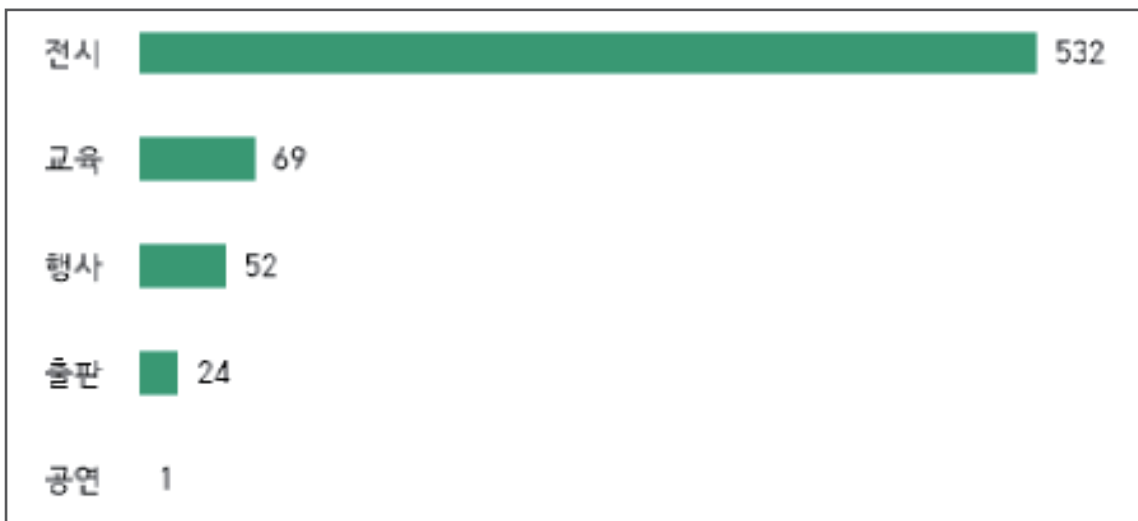
- 시각예술의 전체 전시 활동 가운데 255건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해 개최되었으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전시를 개최한 곳은 유성구의 모리스갤러리와 갤러리 M 등이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전체 분야에서 전시 활동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활동은 교육 활동이었으며 69건의 시각예술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음
 - 시각예술의 교육 활동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 전체 교육 활동 가운데 도서관에서 진행된 활동은 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장 많은 시각예술 교육 활동을 보여준 곳은 월평도서관이었으며 서구와 유성구에 소재한 도서관들에서 많이 개최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행사 활동은 52건 진행되었으며 공모 형태의 활동이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었음
 - 〈2021 세계 물의 날 기념 - 물 사랑 그림 공모전〉, 〈대전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지원전 - 넥스트코드 2021 작가선정 공모〉 등과 같은 공모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는데, 2021년 시각예술 전체 분야에서 열린 공모 행사는 28건이었음
 - 공모 활동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시각예술의 행사 활동은 미술 축제였으며 〈대전 공예박람회〉, 〈대전건축문화제〉와 더불어 아트 마켓을 겸한 〈대전 아트 쇼〉, 〈DAAF 201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술장터〉 등이 개최되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행사 활동은 52건 진행되었으며 공모 형태의 활동이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었음
 - 〈2021 세계 물의 날 기념 - 물 사랑 그림 공모전〉, 〈대전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지원전 - 넥스트코드 2021 작가선정 공모〉 등과 같은 공모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는데, 2021년 시각예술 전체 분야에서 열린 공모 행사는 28건이었음
 - 공모 활동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시각예술의 행사 활동은 미술 축제였으며 〈대전 공예박람회〉, 〈대전건축문화제〉와 더불어 아트 마켓을 겸한 〈대전 아트 쇼〉, 〈DAAF 201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술장터〉 등이 개최되었음
- 2021년 시각예술의 출판 활동도 24건 진행되었으며 단행본과 전자책을 통하여 발간 활동이 추진되었음
 - 전시 도록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관련 전문 서적이 건축, 사진, 조각 등의 분야에서 발간되었음

- 시각예술 관련 서적을 가장 많이 발간한 주체는 대전시립미술관이었으며 민간주체의 출판사에서 7건이 발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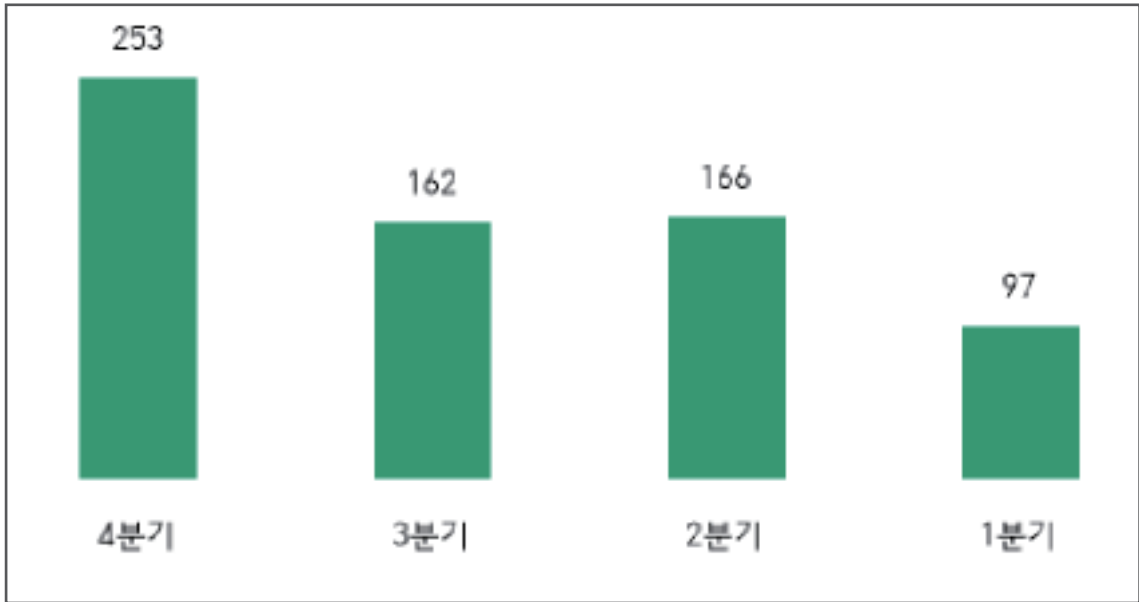
[표 29]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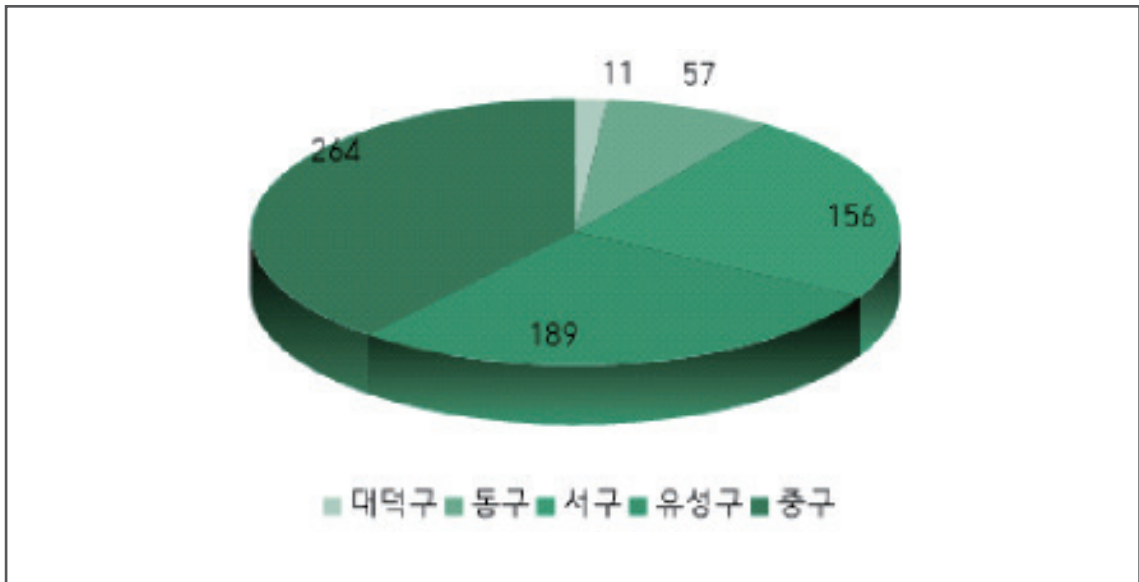
[표 30]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표 31]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표 32] 2021년 대전지역 시각예술 활동 자치구별 현황



1) 회화

- 시각예술 활동 가운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분야는 회화 분야였음
 - 전시를 비롯하여 교육, 행사 등을 통하여 진행된 회화 분야의 활동은 237건이었음
 -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유형을 보여준 분야는 전시였으며 서양화를 비롯하여 한국화 등 평면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시 건수는 226건이었음
 - 전시 활동의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전시 형태로 치러진 경우가 대략 132건 이었으며 단체전시 형태로 진행된 경우는 94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단체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시설에서 진행된 기획전시를 비롯하여 한국문인화협회 대전지회, 대전여성미술가협회, 대전불교미술가회, 다인다색 등과 같은 미술 단체들에 의해 진행되었음
 - 이런 가운데 대전색연필화협회가 첫 번째 정기전을 개최하였으며, 한국전업미술가협회가 대전중구문화원에서 <한국전업미술가협회전>을 개최하였음
 - 출판 활동을 제외한 235건의 회화 분야 활동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단 2건이었으며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치러진 활동은 5건에 그쳐 거의 100%에 가까운 228건의 활동이 대면 방식을 통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회화 분야의 전시 활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진행된 경우가 63건이었으며 174건의 활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중구에서 가장 많은 회화 분야의 전시 활동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화 분야의 전시 활동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 점차 늘어나 3, 4분기에 해당하는 9과 10월에 가장 많은 29건씩 열렸음
 - 가장 적은 활동을 보여준 1월에는 2020년에 개최되어 2021년까지 계속 진행된 전시를 포함하여 9건의 활동이 있었으며 2월에도 10건밖에 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 수 있음
 - 226건의 전시가 개최된 기간은 평균 15일 동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오랜 기간 개최된 전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산성도서관에서 열린 <그림책 속 원화 전시>였음
 - 회화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정리해 살펴보면, 4분기 (76건)→3분기 (67건)→2분기 (62건)→1분기 (32건) 순을 보여주었음
 - 회화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구 (105건)→유성구(86건)→서구 (39건)→동구 (6건)→ 대덕구 (1건) 순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전시 활동 이외에도 총 11건의 교육과 행사, 출판 활동이 회화 분야에서 진행되었음
 - 한국전통민화협회의 주관으로 시행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토요일, 우리 가족 민화 속으로> 등과 같은 회화 관련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4건 열렸음

- 4건의 행사 활동이 회화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영아트갤러리가 특별전시 참여작가를 공개 모집한 1건의 공모 활동과 3건의 경연대회가 대면 방식을 통해 개최되었음
- 3건의 출판 활동을 통하여 전시 관련 도록이 발간되기도 하였음

2) 조각·설치

- 조각·설치 분야에서는 전시를 비롯하여 교육, 행사 등을 통하여 21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조각·설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전시였으며 12건의 전시 활동이 개최되었음
 - 12건의 전시 활동 가운데 10건이 개인전시 형태로 열렸으며 2건의 전시가 유성문화원과 (사)대전조각가협회에 의한 단체전시 형태로 개최되었음
 - (사)대전조각가협회에서 개최한 전시는 해외 작가 초대교류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조각·설치 분야의 전시 활동은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만 개최되었고, 대덕구와 동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았음
 - 조각·설치 분야의 전시 활동은 18건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건의 전시가 민간주체에 의해 개최되었고, 9건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전시시설에서 개최되었음
 - 조각·설치 분야의 전시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중구 (7건)→유성구 (4건)→서구 (1건) 순으로 집계됨
- 조각·설치 분야에서 진행된 그 밖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 출판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조각·설치 분야에서 시행된 교육 활동은 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건의 활동이 서구에 소재한 도서관들에서 진행되었음
 -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 『이응노 소장품 선집-조각』을 발간하여 1건의 출판 활동이 조각·설치 분야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조각·설치 분야에서 진행된 21건의 활동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
 - 전시를 비롯하여 교육, 출판 활동이 진행된 조각·설치 분야의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전시 (12건)→교육 (8건)→출판 (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조각·설치 분야의 경우,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에서 7월까지 단 1건의 활동밖에 진행되지 못했으며, 나머지 모두는 하반기에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15건)→3분기 (5건)→2분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대덕구와 동구에서는 1건도 열리지 않았으며 유성구, 중구, 서구에서 각각 7건씩의 활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3) 서예

- 서예 분야에서는 전시를 비롯하여 교육,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53건의 전체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전시로 46건의 활동이 개최되었음
 - 서예 분야에서 개최된 46건 전시 가운데 41건이 단체전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5건의 전시만이 개인전시 형태로 치러졌음
 - 서예 분야의 전시 활동 경우, 대부분 한국추사연목회, 보문연서회, (사)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대전지회 등과 같은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되거나 주관되어 진행되었으며 5건의 전시 활동이 공공주체에 의해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한국크래프트디자인협회가 12월에 대전서구문화원에서 회원들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음
 - 서예 분야의 전시 활동은 5건의 전시를 제외하면 모두 다 공공주체가 운영되는 시설에서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서예 분야의 전시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장소는 대전예술가의집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중구문화원에서도 9건의 활동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예 분야의 전시 활동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서예 분야의 전시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어 22건의 활동이 개최되었고, 3분기에 해당하는 8월에는 1건의 활동도 없었음
 - 서예 분야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 (22건)→2분기 (12건)→3분기 (7건)→1분기 (5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서예 분야의 전체 활동을 자치구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중구 (30건)→서구 (7건)→동구 (4건)→유성구 (3건)→대덕구 (2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서예 분야에서는 전시 외에도 교육과 행사,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열렸는데, 4건의 교육 활동을 비롯하여 행사가 2건, 출판이 1건씩 진행되었음

- 서예 분야의 교육 활동은 서구와 유성구에 소재한 도서관에서 주로 개최되어 캘리그래피를 중심으로 한 서예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고, 아가랑도서관에서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감성 태교 교육 활동이 열리기도 하였음
- 임명웅의 서예 작품을 정리한 『文谷 林明雄』이 7월, 오늘의문학사에서 발간되기도 하였음

4) 사진

- 사진 분야는 112건의 활동이 전시, 교육, 행사, 출판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사진 분야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전시 활동이었음
 - 출판을 제외한 모든 활동 가운데 6건의 활동만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고, 3건의 활동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112건의 활동이 진행된 사진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리해보면, 전시(101건)→행사(9건)→출판(2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사진 분야의 전체 활동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구와 중구(각 29건)→서구와 동구(각 25건)→대덕구(4건) 순으로 진행되었음
 - 이를 분기별로 분류해 정리해보면, 4분기(41건)→2분기(33건)→3분기(22건)→1분기(16건) 순으로 나타났음
- 101건의 전시가 개최된 사진 분야에서는 단체전시가 많이 열렸으며 민간주체에 의한 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진행되었음
 - 사진 분야에서는 46건의 전시가 개인전시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55건의 전시가 단체전시 형태로 열렸음
 - 개인전 형태로 개최된 전시 중 조천현의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 사진전>이 대전역, 대전시청역, 유성온천역, 대전역스포츠시민광장을 순회하며 여러 차례 열렸음
 - 사진 단체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정기전 형태의 단체전시 외에도 공모전 출품작과 수상작품으로 꾸민 전시가 단체전시 형태로 여러 차례 개최되기도 하였음
 - 공공주체의 주최와 주관에 의해 개최된 전시는 8건이었으며 1건의 공공과 민간 공동 개최를 포함하여 민간이 추진하여 개최한 전시가 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사진 분야의 전시가 가장 많이 열린 장소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갤러리더비미가 가장 많은 18건을 개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대전예술가의집 에서 16건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사진 분야의 전시 개최 기간은 평균 16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오랜 기간 열린 전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된 <2021 제18회 대전충남보도사진전>이었음

- 전시 외에도 사진 분야에서는 행사 활동이 9건, 그리고 출판 활동이 2건 진행되었음
 - 사진 분야에서 전시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활동은 8건의 행사 활동이 개최되었으며 <대전 관광사진 전국 공모>, <대전 청년 사진 공모>, <양성평등 스마트폰 사진 공모> 등과 같은 공모 행사가 주로 개최되었음
 - 관평도서관에서 플리쳐상을 수상한 보도기자, 김경운의 강연회가 열리기도 하였음
 - 두 권의 사진집, 이세현의 『바다를 담은 밥상』과 범송의 『솔바람 소리』가 출판사, 자자와 서진출판사에서 발간되었음

5) 공예

- 공예 분야에서는 62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교육 활동이 가장 많았음
 - 공예 분야에서는 2020년에 개최되어 8월까지 계속된 대전선사박물관의 특별전시를 제외하면 1월에는 1건의 활동도 없었으며 2월에도 1건의 활동만이 진행되었음
 - 공예 분야의 활동이 열린 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43건의 활동이 개최되었으며 19건의 활동이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열렸음 알 수 있었음
 - 공예 분야의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공공주체가 진행하거나 개최한 활동은 34건이었고, 민간주체가 주도해 개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25건이었으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도 3건 있었음
 -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공예 분야의 활동 현황을 점검해보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39건이었으며 비대면 방식이 17건,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된 활동은 1건 있었음
 - 교육 활동이 많이 진행된 공예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교육(29건)→전시(26건)→행사(7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분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4분기(30건)→2분기(19건)→3분기(7건)→1분기(6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예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22건)→서구(18건)→유성구(17건)→동구(4건)→대덕구(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예 분야의 교육 활동은 주로 도서관에서 열렸으며, 교육 활동을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은 월평도서관이었음
 - 공예 분야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29건이었으며 도서관 주간 행사와 온라인 교육 방식을 통한 공예 관련 교육 활동이 도서관에서 많이 개최되었음

- 도서관 외에도 대전전통나래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등에서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공예 분야의 전체 교육 활동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17건이었으며 1건의 활동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열렸고, 나머지는 모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오랜 기간 진행된 공예 분야의 교육 활동들은 대전전통나래관의 <무형문화전수학교>, 하늘강아들리에의 <배오개 예술품앗이>, 소소한 연구소에서 진행한 <치유 공예-도자기를 통한 일상복원과 자기 치유> 등이었음
- 공예 분야의 전시 활동은 개인전시 형태의 활동이 단체전시 형태보다 많았으며 <2021 대전공예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 활동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공예 분야의 전시 가운데 개인전시 형태로 진행된 전시 활동은 14건이었으며 12건이 단체전시 형태로 열렸음
 - 공예 분야의 전시 활동이 가장 많이 개최된 곳은 유성구에 자리한 모리스갤러리였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공예 분야의 개인전시가 많이 진행되어 권우진, 이은하, 윤상희 등의 전시가 열렸음
 - 대전도예가회, 대전섬유조형회 등의 단체 정기전이 열리는 가운데 토우동아리회의 첫 번째 정기회원전이 개최되었음
 - <2021 대전공예박람회>와 <공예주간-소통과 행복>과 같은 공예 관련 행사 외에도 대전컬트이야기의 <윤컬트 페스티벌> 등과 같은 축제 형태의 활동과 <대전광역시 공예품 대전 작품공모> 등의 행사 활동이 열리기도 하였음

6) 디자인

- 디자인 분야의 활동은 주로 민간시설보다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열렸으며 대면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에서 25건 진행된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교육 (12건)→전시 (7건)→행사 (6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활동이 개최되거나 진행된 장소는 유성구의 갤러리 M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천연염색디자인협회전-FELT>를 제외하면 모두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디자인 분야의 활동은 민간주체가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경우는 1건 있었으며 나머지 모두는 공공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거나 개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였으며 이 시기에 전시 활동을 제외한 행사와 교육 활동 10건이 개최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지역은 서구와 유성구였으며 이 지역들에서 18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10건)→3분기(8건)→1분기(4건)→2분기(3건)이었으며 2월과 5월에는 1건의 활동도 진행되지 않았음
 - 디자인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서구(10건)→유성구(8건)→중구(7건)이었으며 동구와 대덕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디자인 분야에서는 13건의 활동이 전시와 행사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전시 활동은 모두 단체전시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한밭도서관의 <또 하나의 선물, 별책부록전>, 한국천연염색디자인협회의 <제1회 한국천연염색디자인협회전-FELT> 등 같은 전시가 열렸음
 -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 <대전 디자인 공모전>,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4건의 공모 활동이 개최되었음
 -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21 대전 디자인 페스타>, <2021 대전 컬렉션 온택트 패션쇼> 등과 같은 축제 활동이 있었으며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교육 활동은 주로 도서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밭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공예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이었으며 12건의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교육 활동은 한밭도서관과 서구에 소재한 도서관들에서 모든 활동이 진행되었음
 - 디자인 분야의 교육 활동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이 9건이었으며 3건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7) 판화

- 판화 분야에서는 1건의 활동이 있었으며 1건의 전시 활동이 진행되었음
- 판화 분야에서는 <2021 DIPE 대전 국제판화전>이 유일하게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이공갤러리에서 개최되었음

8) 드로잉

- 드로잉 분야에서는 3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전시 활동이었음
 - 드로잉 분야의 전시 활동은 모두 단체전시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모두 <나드로잉회>, <대전이 미지드로잉회> 같은 민간단체가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개최되었음
 - 드로잉 분야의 전시 활동은 5월과 6월에 모두 진행되었음
 - 드로잉 분야의 전시 활동은 유성구에서 2건, 중구에서 1건 개최되었으며 모두 다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9) 뉴미디어

- 뉴미디어 분야에서 진행된 활동은 8건이었으며 전시와 행사, 공연을 통해 진행되었음
 - 뉴미디어 분야의 전시 활동은 4건이었으며 공공주체가 1건을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민간주체, 민간과 공공주체 공동으로 추진한 활동은 3건이었음
 -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해 개최한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와 대전시립박물관의 <산수정원, 고산구곡> 외에도 타블로 비방이 주최한 단체전시와 이명섭의 개인전시가 민간주체에 의해 개최되었음
 - 행사 활동으로는 <제2회 대전블루스 유튜브 영상 공모전> 등이 개최되었으며 샌드아트를 기반으로 한 공연 활동이 1건 있었음
 - 뉴미디어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정리해 살펴보면, 3분기 (3건)→1분기와 4분기 (각 2건)→2분기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뉴미디어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유성구 (4건)→중구(2건)→동구와 서구 (각 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10) 건축

- 건축 분야의 활동은 행사, 전시, 교육, 출판 활동을 통한 5건의 활동이 진행되었음
 - 대전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대전건축문화제>가 10월에 개최되었음
 - <2021 대전건축문화제>의 부대행사로 어린이 건축학교를 비롯하여 학술행사, 전시 등의 다양한 행사가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열렸음

- <2021 대전건축문화제>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2021 건축디자인캠프>가 8월에 국립한밭대학교에서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건축 관련 번역서, 『풍화에 대하여』가 단행본과 전자책으로 발간되기도 하였음
-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전의 근대건축물 관련 전시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11) 혼합

- 시각예술의 회화, 서예, 공예, 뉴미디어, 사진 등의 분야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함께 활동한 혼합 분야에서는 151건의 활동이 전시, 교육, 행사, 출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혼합 분야의 활동을 살펴보면, 민간주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70건이었으며 공공주체가 주도하여 주체하거나 주관한 활동은 72건이었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주체하거나 주관한 활동도 9건 있었음
 - 혼합 분야의 활동은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90건 개최되었으며 민간주체의 시설에서 59건 개최되었으며 그 외 소재동 아트벨트와 대전 일대의 전시 관련 시설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활동 2건이 있었음
 - 혼합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전시 (105건)→행사(20건)→출판 (15건)→교육 (1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됨
 - 이를 분기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4분기 (50건)→4분기 (39건)→1분기와 2분기(각 31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자치구로 분류해 점검해보면, 중구 (59건)→서구 (46건)→유성구 (30건)→동구 (14건)→대덕구 (2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전시 활동의 경우, 주로 단체전시의 형태로 진행되었음
 - 105건의 전시가 개최된 혼합 분야의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전시 형태로 치러진 활동이 88건이었으며 이는 혼합 분야 전체 전시의 약 84%에 해당함
 - 혼합 분야의 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시설 외에도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전통나래관, 화폐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개최되었으며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일원과 엑스포과학공원 등 같은 야외시설을 이용하여 열리기도 하였음
 - 혼합 분야의 전시 활동 가운데 72건이 민간주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여 열렸으며민간과 공동주체가 같이 참여하여 추진한 활동도 9건 있었음
 - 혼합 전시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50건)→3분기 (39건)→1분기와 2분기 (각 2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를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중구 (48건)→유성구 (24건)→서구 (22건)→동구 (10건)→대덕구 (1건) 순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은 작품 모집을 공모하는 활동 외에도 아트 마켓을 활용한 미술 축제, 강연회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음
 - 혼합 분야의 행사 활동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유형은 공모 활동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이 12건 진행되었으며 공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 일반 공개되기도 하였음
 - <대전 아트 쇼>를 비롯하여 <DAAF 2021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술장터> 등과 같은 아트 마켓을 겸한 미술 축제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 전문 미술비평가의 강연회 등이 대전시청의 <수요 브런치 콘서트>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기도 하였음
- 혼합 분야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은 총 11건이었으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11건이 진행된 혼합 분야의 교육 활동 가운데 9건이 서구와 유성구에 자리한 도서관들에서 진행되었음
 - <이건희 컬렉션에 물든 한국미술의 거장들>, <이건희 컬렉션으로 만나는 해외 거장들> 등과 같은 강의형 교육 활동과 중구문화원의 <대전미술과 함께하는, 토요 아침 화실> 등과 같은 체험형 교육 활동이 도서관과 문화원 등에서 진행되었음
 - 교육 활동 가운데 8건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활동은 3건이었음
- 혼합 분야에서는 15건의 출판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전시 도록을 비롯하여 김상규의 『의자의 세계』와 같은 단행본이 이유출판에서 발간되기도 하였음

5. 다원예술 현황

- 탈분류, 다제간, 영화,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 등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동과 흐름을 바탕으로 진행된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은 299건이었으며 문화예술 바깥 영역의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가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예술 활동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들을 다채롭게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 가운데 과학기술과 연계하여 활동은 다제간 분야에서만 52건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으며 영화 분야에서도 1건 열렸음

- 〈과학과 미술과 공연의 만남, 페인터즈〉, 〈토토즐 페스티벌〉, 〈대전 추억 소환 이벤트〉 등과 같은 대중 친화적인 요소와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활동이 다제간, 탈분류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다원예술 분야의 활동이 진행되는 시설이나 장소는 문화예술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듯한 장소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청공원, 대전시민천문대, 대전시청 로비 등과 같은 장소와 시설에서 다양한 활동이 열려 진행되기도 하였음
-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주체별로 나눠 살펴보면, 민간주체가 추진하여 진행된 활동은 45건이었으며 전체 활동 가운데 85% 정도에 해당하는 활동이 공공주체에 의해 추진되거나 주관되어 열린 것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이 진행된 운영형태를 점검해보면, 55% 정도에 해당하는 활동이 대면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약 43%에 해당하는 136건이 활동이 비대면 방식이나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개최되거나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펼쳐진 지역은 유성구였고, 가장 많은 진행되거나 열린 시설 또는 장소는 국립중앙과학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밭도서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4개 분야에서 진행된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중분류별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다제간 (133건)→탈분류 (111건)→영화 (29건)→만화·웹툰·애니메이션 (26건)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교육 (117건)→행사 (99건)→상영 (28건)→공연 (25건)→전시 (22건)→출판 (5건)→지원 (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자치구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유성구 (125건)→중구 (73건)→서구 (62건)→동구 (25건)→대덕구 (14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행사가 대전에서 동시 개최된 활동도 있었음
- 다원예술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4분기 (104건)→2분기 (87건)→3분기 (80건)→1분기 (28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원예술 분야의 행사 활동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확장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다원예술에서는 99건의 행사 활동이 진행되었고, 다제간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다원예술의 행사 활동 전체 현황을 활동형태별로 정리해보면, 축제 (39건)→공모 및 경연 (24건)→북 콘서트 (10건)→시낭송회 (9건)→학술행사 (8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지난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지되거나 무산된 축제 활동이 다시 대면 형식으로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웹툰 캠퍼스의 북 콘서트, 〈만화가 있는 저녁〉을 비롯하여 〈대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등과 같은 행사 활동은 비대면 방식을 유지해가며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진행방식을 제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유성 유튜브 영상 공모전〉, 〈지금, 여기, 우리 영상 공모전〉 등과 같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모전이 많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제1회 대전 브루스 축제〉 등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가 새로 개최되어 대전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와 더불어 〈중리동 마을 축제〉, 〈오정동과 한남대가 같이하는 팔캉스 & 무지개 축제〉 등과 같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이 축제 형태를 통해 전개되기도 하였음

■ 다른 문화예술 분야가 결합하거나 접목하여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비예술적인 영역의 개입과 융합의 시도를 통해 진행된 전시와 공연의 활동이 44건 진행되거나 열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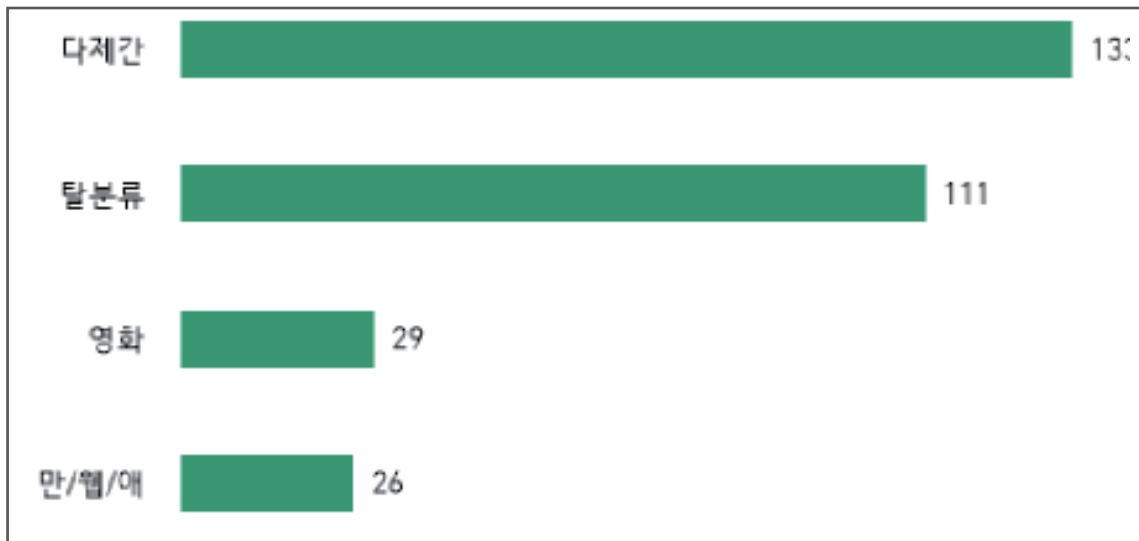
- 문학과 디지털 영상을 결합한 디카시를 비롯하여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웹툰과 패션, 영화와 음악 등은 물론 게임과 시각예술, 과학기술과 무용, 마술과 문학, AR 기술과 문학, AR 기술과 클래식 음악 등을 결합하거나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과 경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다제간, 탈분류, 웹툰 분야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음
- 도서관 등지에서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비롯하여 뮤직비디오 상영, 공연, 전시의 활동을 활발하게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다원예술 분야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의 상영을 통해 진행된 공연과 전시 활동은 영화제와 같은 행사 활동을 제외한 44건이었음

■ 다원예술에서 진행한 교육 활동은 문화예술 기반시설인 도서관, 문화원, 미술관 등 같은 시설 외에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개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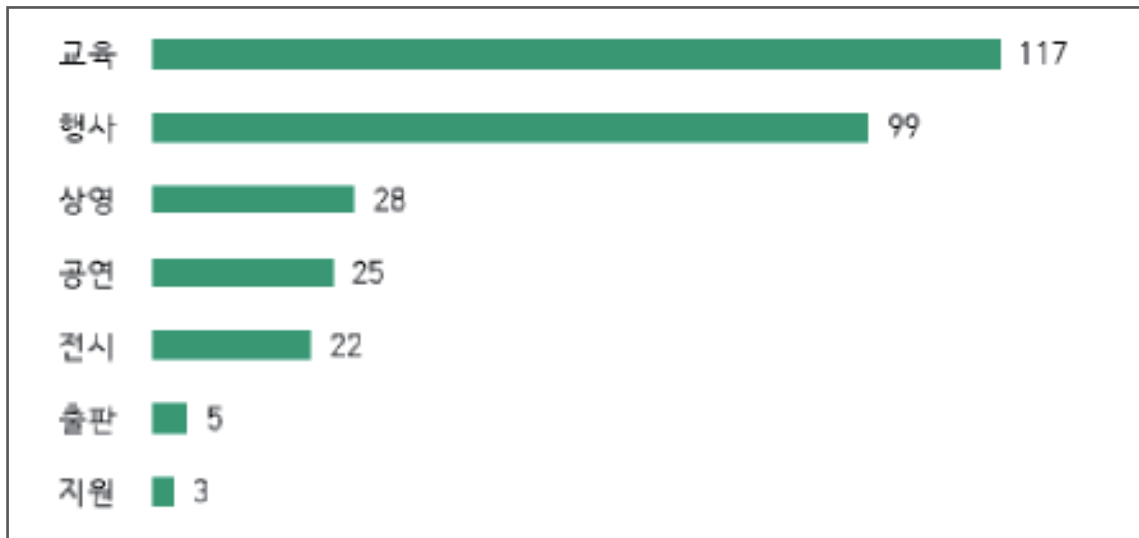
- 다원예술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교육 활동을 진행한 분야는 탈분류 분야였으며 4개 분야에서 〈오정동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 〈마을 다큐멘터리 워크숍〉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11여 건의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다원예술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대중 친화적이고 지역 사회 내지는 공동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열리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마을 다큐멘터리 워크숍〉, 〈영화를 통해 만나는 우리 가족, 마을〉, 〈우리 동네 창작 퍼포먼스, We〉 등과 같은 활동은 그 일환으로 개최된 활동이기도 함
- 대덕문화원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고순내〉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은 단지 교육적 차원의 활동에 머물지 않고 전시와 공연, 출판, 행사 등의 활동으로 확장하거나 연장해 열리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웹툰캠퍼스 등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외에도 전문인,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다원예술 분야에서 진행된 교육 활동을 중분류별로 나눠 살펴보면, 탈분류 (57건)→다제간 (53건)→만화·웹툰·애니메이션 (5건)→영화 (2건)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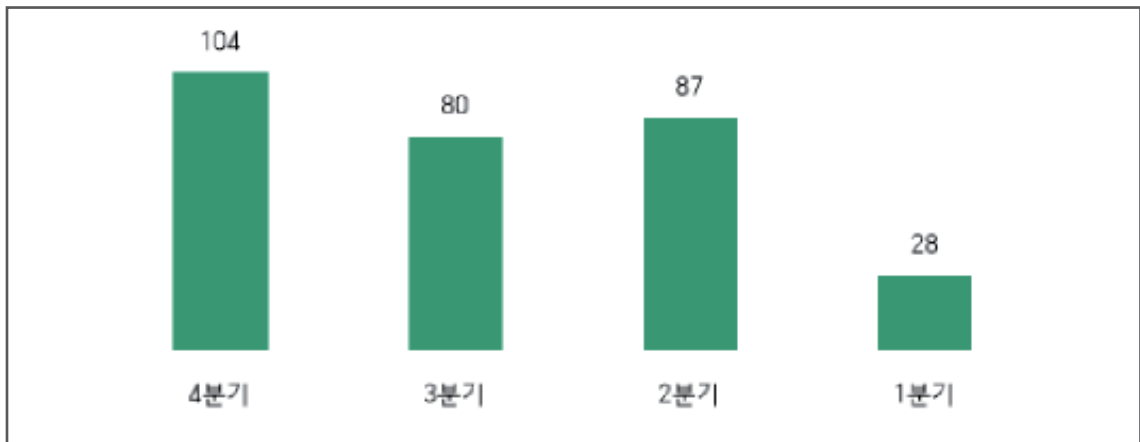
[표 33]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전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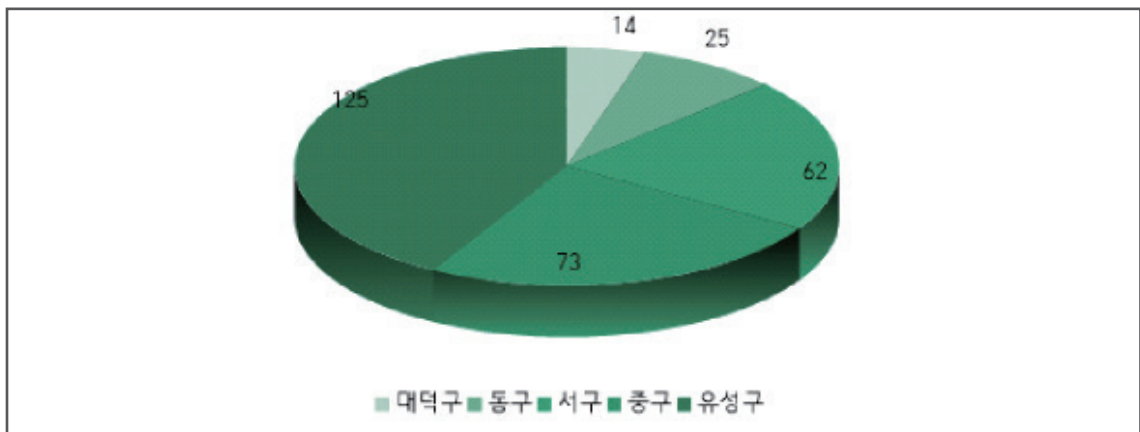
[표 34]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활동유형별 현황



[표 35]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분기별 현황



[표 36] 2021년 대전지역 다원예술 활동 자치구별 현황



1) 탈분류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화와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들이 부분적 또는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문화예술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움직임과 지형을 생성해내고자 하는 탈분류 활동에서는 111건의 활동이 있었음
 - 탈분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유형은 교육을 통한 활동이었으며 전체 활동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58건의 교육 활동이 대전 시내의 도서관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탈분류 분야 중 도서관에서 열리거나 개최된 활동은 42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도서관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2월 노은도서관 문화공연 운영-책 방속 마법 우체국>, <노은도서관 송년맞이 문화공연, 오창현의 마술책방> 등과 같은 공연 활동을 진행한 유성구의 노은도서관이었음
 - 특히 탈분류 분야의 활동 중 비대면 방식,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56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활동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였음
 - 출판과 미상 등의 활동을 제외한 탈분류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운영형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대면 방식 (47건)→비대면 방식 (46건)→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 (10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문화예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생산자들,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방법을 실험하게 한 탈분류 분야의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교육 (58건)→행사 (37건)→공연 (9건)→전시 (4건)→출판 (3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탈분류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유성구였는데, 이를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성구 (40건)→서구 (34건)→중구 (18건)→동구 (11건)→대덕구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0월에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탈분류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2분기 (37건)→4분기 (36건)→3분기 (26건)→1분기 (12건)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58건의 활동을 보여준 탈분류 분야의 교육 활동은 도서관 외에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하여 문화원, 대전시립초등·중학교, 한국효문화진흥원, 기쁜 우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등지에서도 개최되었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한 탈분류적 교육 활동 외에도 동화와 연극을 통한 <가족 동화구연>, 문학과 서예를 통한 <책, 그리고 쓰다> 등과 같은 교육 활동과 대중 친화적인 공연예술인 마술과 시각예술의 새로운 매체인 3D 프린터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인 <책과 함께하는 3D> 등이 구즉도서관과 한밭도서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나도 영상 아티스트>, <작곡, 연기, 촬영을 함께 배우는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과 같은 영상 매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중적 교육 활동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대전 시내 초등학교 등지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특히 일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초등·중학교의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교육 활동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4건의 교육 활동만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영화를 통한 시각예술의 이해, 공연예술과 음악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 활동 외에도 상생시네마클럽이 주최·주관한 <영화를 통해 만나는 우리 가족, 마을>, <우리 동네 창작 퍼포먼스, We>와 같은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되기도 하였음
 - 어르신을 위한 교육 활동도 문화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대덕문화원에서 진행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꼬순내>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출판, 전시 활동으로 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탈분류 행사 활동 외에도 전시와 공연, 출판 등을 통해 문화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분야를 통합하고자 하는 탈분류적인 활동이 16건 있었음
- 문학과 사진을 결합하여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디카시를 기반으로 한 출판 활동이 진행되었고, 탈분류적인 활동을 통해 『나는 대전을 꺾어다가, 글을 지었다』, 『무죄』 등과 같은 책들이 발간되기도 하였음
 - <오창현의 마술 책방>, <그림자 뮤지컬, 더 쉼도우>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아트와 공연예술 등을 활용한 탈분류 활동이 국립중앙과학관과 한밭도서관, 노은도서관에서 열리기도 하였음
 - 패션과 웹툰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제공한 <웹툰, 패션과 만나다>와 기존의 문화예술 체계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던 <한국메이크업교수협회회 초대작가전> 등과 같은 전시 활동이 열리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2020년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주춤하던 축제 활동을 통한 탈분류적 활동이 재개 되기도 하였는데,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올레 아트 페스티벌> 등과 <한밭 수통골 문화축제>, <한남거리 동거동락 프로젝트> 등과 같은 새로운 축제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리기도 하였음

2) 다제간

- 과학과 기술, 역사와 인문학, 음식과 지역의 문화자원 등 비예술적이고 문화예술적 영역 밖에 속한 분야의 활동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들이 결합하여 진행된 다제간 분야의 활동이 133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기존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외에도 지역 서점, 대안적 전시와 공연 공간, 야외공간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시설에서 전시, 공연, 행사 등을 통해 진행된 다제간 분야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활동유형은 행사를 통한 활동이었음
 - 다제간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을 열거나 진행한 시설 내지는 장소는 국립중앙과학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밭도서관이었음

- 다제간 활동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활동은 9월에 대전 e-스포츠 경기장이 개장하여 대전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거점이자 크리에이터의 집결소가 마련된 것이었음
 - 다제간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거나 열리는 활동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50여 건이었으며 이는 다제간 분야의 모든 활동 가운데 43% 정도를 차지하는 활동이기도 하였음
 - 다양한 비예술적 영역의 활동과 문화예술 분야가 결합하여 문화예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생산자들,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 한 문화예술 생산방식을 실험하게 하는 다제간 분야의 전체 활동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교육(52건)→행사(49건)→공연(16건)→전시(14건)→상영과 출판(각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다제간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유성구였고, 탈분류 분야의 전체 활동을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유성구(77건)→서구(25건)→중구(17건)→동구(9건)→대덕구(5건) 순으로 나타났음
 - 10월에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거나 열린 다제간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4분기(55건)→3분기(36건)→2분기(32건)→1분기(10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제간 분야의 활동 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66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제간 분야에서 진행된 전체 활동 현황을 운영형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비대면방식(66건)→대면 방식(54건)→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11건)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제간 분야에서는 50건의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AI 페스티벌>,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같은 축제 형태의 대형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연계한 <2021 대전 마을미디어 축제>, <2021 신통방통 신성동 온 마을 축제>, <중리동 마을축제>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대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를 비롯하여 자치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개최된 <유성 과학 축제 Science & Fun> 같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개최되거나 열린 행사 활동은 14건이었음
 - 이외에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며 대전을 대표하는 행사 활동으로 개최된 <2021 토토즐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대중예술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에 바탕을 둔 <대전 부르스 축제>와 같은 문화예술 행사가 새롭게 개최되기도 하였음
 - 신성동, 오정동, 중리동 등과 같은 지역에서 지역 사회 내지는 공동체와 연계한 작은 문화예술 축제 형식이 열리기도 하였음
 - 축제 외에도 다제간 분야의 행사 활동은 공모 행사나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영상을 중심으로 한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공모전>을 비롯하여 <대전 블루스 영상공모전>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AI 페스티벌>,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본행사> 등이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2021 봄·가을 온라인 사이언스 데이> 처럼 비대면 방식의 행사 활동이 다제간 분야의 새로운 문화 예술 행사 활동 형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음
 - 다제간 분야에서 진행된 행사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축제 (23건)→공모 (12건)→학술행사 (4건)→기념식 (3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제간 분야의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도서관은 물론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선사박물관 등과 같은 공공주체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외에도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이나 장소에서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과학기술과 시각예술이 결합한 <아티언스 캠프>를 비롯하여 문학과 전자미디어가 결합한 <전자책, 어린이 작가 되기> 같은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과학과 공예, 디자인 등을 연계한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대전선사박물관에서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역사와 시각예술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다양한 전문과정의 다제간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자연을 자원하다>, <뇌파×업사이클 공예 캠프> 등과 같은 다제간 분야의 교육 활동이 민간주체에 의해 주최·주관되어 활발하게 개최되거나 진행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음
- 다제간 분야에서 공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거나 개최한 곳은 국립중앙과학관이었음
- <허풍선이 음악쇼, 바로 그거였Show!>, <춤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가무시재> 등과 같은 공연 활동을 열거나 진행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가장 많은 공연 활동이 열렸는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11여 건의 공연 활동을 진행하거나 개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과학기술과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결합한 전시, 공연 활동도 진행되었는데, 과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결합한 <페인터즈>, <놀이공원 속 과학과 음악>, 춤과 미디어를 결합한 <가무시재> 등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거나 진행되기도 하였음
 - 산성도서관에서는 <신나는 도서관 나들이, 상상 속! VR 동화>라는 아동문학과 AR 기술이 결합한 다제간 분야의 활동을 진행하여 동화를 입체적으로 관람하게 하는 기회와 체험을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음

3) 영화

- 대전 시내에 자리한 일반 상영관에서 공개된 영화를 제외한 영화 분야의 활동은 39건이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시사회, 상영회, 축제 등의 행사와 교육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음

- 2000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최민영 감독의 <오토바이와 햄버거>가 2021년, 제42회 청룡영화상과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대한민국 대학 영화제에서 단편영화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음
 - 대전 최초 마을영화로 2019년부터 기획되어 제작을 마친 <88번길의 기적>이 대흥 영화사 일년만 스튜디오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사항 또한 특기할 만한 문화예술 활동이라 하겠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영화제작, 특별 상영회와 시사회, 교육, 행사 활동을 통해 진행된 영화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분야는 상영을 통한 활동이었음
 - 영화 분야에서 진행되거나 열린 전체 활동을 활동형태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상영(17건)→행사(9건)→교육(2건)→지원(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영화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중구였는데, 이를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구(17건)→유성구(4건)→동구(4건)→대덕구와 서구(각 2건)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영화 분야의 활동 현황을 분기별로 나눠 정리해보면, 2분기(9건)→3분기(10건)→4분기(7건)→1분기(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영화 분야의 활동 운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대면 방식(22건)→비대면 방식(6건)→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1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영화와 관련된 상영 활동은 주로 시사회와 상영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서관에서 개최된 상영회와 더불어 독립영화 등의 시사회가 대전 시내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 도서관에서 일반 상영관에서 공개된 영화들을 재상영하는 온라인을 통한 상영회가 많이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대전학생교육화원에서는 장기간 운영하는 <도서관 속 영화관>을 개최하였음
 - 시사성 있는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국 순회를 통해 대전에서도 시사회와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의 구조 활동을 기록한 영화, <로그 북>과 <다큐멘터리 무저갱> 등의 영화가 공개 상영되기도 하였음
- 영화 분야에서는 행사 활동이 가장 많이 개최되었는데, 새로운 대전의 영화제로 <제 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가 개최되었음
- 9건의 행사 활동이 진행된 영화 분야에서는 기존의 <철도영화제>, <대전독립영화제> 외에도 <대전여성문화제>의 부대행사로 열린 <여성영화 상영회>, <마을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온라인 상영회> 등과 같은 활동이 열리거나 진행되었음

- <제1회 대청호가 그림 영화제>가 공모 형태를 통해 출품작을 선정하여 대면 방식으로 상영회를 개최하는 축제 형태의 행사 활동으로 개최되기도 하였음
- 영화 관련 교육 활동은 적었으나, 다제간 분야의 활동과 탈분류 활동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였음
 - 다제간 분야의 활동, 탈분류 활동을 통해서도 영화 관련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영화 그 자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은 대전영화협회가 씨네마아트에서 진행한 <고전 영화 감상 교실>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진행한 <마을 다큐멘터리 워크숍>뿐이었음
 - <마을 다큐멘터리 워크숍>은 교육 활동을 통한 결과물을 상영하는 행사까지 이어지는 활동이었음
- 많은 제작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영화의 특성을 고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화제작을 지원하고 창작자 내지는 단체를 발굴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8명의 제작자와 3명의 영화제작사가 지원을 받았음

4) 만화·웹툰·애니메이션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행사 활동 중 가장 많이 진행된 활동형태는 상영회였음
 - 도서관에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상영회가 10건 진행되었음
 - 특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개최한 <도서관 속 영화관>을 통해 기존에 일반 상영관을 통해 공개된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연속으로 특별 상영되기도 하였음
 - 비대면 형식으로 북 콘서트 형식의 행사 활동이 5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소만의 『봄이 와 3』이 출판 활동을 통해 발간되기도 하였음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교육 활동은 웹툰캠퍼스를 통해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청년병커 병커의사당에서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주제로 캐릭터 만들기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만화·웹툰 창작 지원과 어시스트 지원사업을 2차례 진행하여 창작 활동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만화·웹툰·애니메이 분야에서는 창작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출판, 교육, 행사, 상영등의 활동을 통해 26건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가장 많은 활동이 시사회와 상영회 활동을 통해 진행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전체 활동 현황을 활동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상영(10건)→행사(7건)→교육(5건)→지원(2건)→출판과 전시(각 1건)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전체 활동을 분기별로 나눠 살펴보면, 2분기(9건)→3분기(8건)→4분기(6건)→1분기(3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활동은 웹툰캠퍼스가 자리한 중구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활동이 진행된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중구(18건)→유성구(6건)→동구와 대덕구(각 1건) 순이었으며 서구에서는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활동을 운영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면 방식(15건)→비대면 방식,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각 5건)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V. 종합분석과 제언

1. 종합분석
2. 향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한 제언

1. 종합분석

- 2021년 대전지역 전역에서 펼쳐진 문화예술 활동은 2,30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에서 개최되는 경우보다는 공공주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문화원, 전수회관 등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나 장소에서 더 많이 개최되고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서도 대면 방식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창작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행사, 교육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행사 활동이 전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 이런 가운데 일부 활동은, 작년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운영형태를 유지해가며 개최되거나 진행 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전개방식과 진행방식을 제시해가는 움직임도 함께 보여주기도 하였음

- 문학 분야에서는 출판 활동을 통한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의 활동은 출판 활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활동을 보여주었음
 - 소설, 시, 수필 등의 창작물 발간을 통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문학 분야에서는 출판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
 -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순수 문학의 행사, 교육 등의 활동 분포는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다원예술의 탈분류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의 분야와 결합한 문학 교육이 도서관과 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탈분류 분야에서 디카시라는 형태의 문학과 영상을 결합한 새로운 문학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출판 활동도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1년, 문학 분야의 활동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책 발간이었으며, 예전에 비해 대전지역에서도 전자책 발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음으로는 1인 출판사의 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숲밭에서 2건의 출판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대전 지역에서도 1인 출판사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문예지의 출판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소재지, 발간 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추적 통로 등이 확보되어야 좀 더 명확한 문학 분야 활동의 면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봄

■ 2021년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공연예술의 경우, 전년에 비해 28% 가량 늘어난 활동이 진행되거나 개최되었음

- 무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을 비롯하여 기타의 시설과 장소에서 실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연예술은 코로나 19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 분야라 할 수 있음
-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 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많은 활동들이 중지되거나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대안적 활동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는 한 해였으나 실제로 대전지역에서 2020년 전체 활동의 8%만이 비대면 방식, 혹은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음
- 2021년에도 공연예술 분야의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6%만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택트_비대면 방식의 활동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고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모색해야 할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1년, 공연예술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대중 친화적인 활동이 활발히 개최되거나 진행된 점이었는데, 실용음악, 힙합 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물론 뮤지컬, 마술 등의 공연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원 및 문예회관의 상주공연예술단체로 선정된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 이 부분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음
- 라이브 스크린을 도입하거나 이머시브 공연 방식을 도입한 연극 분야의 활동 외에도 다제간의 협업으로 진행된 무용공연 등 실험적이고 동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동 방식을 결합하는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시각예술의 경우, 회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많았고, 사진 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진행된 점 등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음

- 전년에도 회화, 서예 등 기존의 미술적 매체와 제작 방법 기반의 시각예술의 활동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2021년에도 역시 회화와 서예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고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활동이 많이 진행되었음
- 혼합 분야에서도 회화나 조각, 서예 등 다른 분야들이 서로 연대하여 단체전시를 개최한 경우는 많았지만,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한 실험적인 작업을 보여준 경우는 적었으며 뉴미디어를 활용한 활동 역시 많지 않았음
- 이런 점으로 보아, 대전지역의 시각예술 활동은 새로운 매체와 접근방법을 시도 하는 활동보다는 기존의 매체와 접근방법에 바탕을 둔 활동이 강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 공예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 활동보다는 교육과 행사 활동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런 가운데 사진 분야가 전년과 비교해 비약적인 활동 건수를 보여준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음

■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원예술의 다제간, 탈분류 분야의 활동에서 특기할 만한 활동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음

- 과학 도시, 대전을 상징하듯 다원예술의 다제간 분야를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전년에 비해 많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활동을 제외하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은 대개 문화예술 소비자를 겨냥한 듯한 활동들이었음
- 문화예술 생산자와 창작자를 중심으로 다제간의 협업을 통한 실험적 창작 활동과 생산 활동 등을 진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음
- 다원예술의 탈분류, 다제간 분야에서는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교육과 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전지역이 지향하는 다원예술 활동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민 하는 내용임
-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과 대중 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한 활동을 보여준 점 등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점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손꼽을 수 있겠음

■ 2021년 대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던 점은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매체와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음

■ 이런 가운데 서로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동시대 문화예술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꾀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등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적 방안과 방향성 설정 역시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 라는 점을 제언하고자 함

- 이번 아니라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와 환경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부분과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파악을 위해서는 향후에는 대전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관한 현황 조사와 실태 파악 등이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임

2. 향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위한 제언

- 향후, 대전지역 문화예술 활동 현황의 면밀한 조사와 실제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전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반구조와 인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와 통로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장기적인 시점에서 제언하고자 함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인적 자원의 정보와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 등의 이력과 활동 상황 등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장치가 필요함
 -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법인,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통합된 정보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사항들이었음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은 기본적으로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지회에 소속하거나 등록되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 이번 아니라 최근,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하고 알리는 매체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SNS 매체와 비공식적인 통로 등을 이용해 진행하는 예술인과 문화 예술 단체들, 또한 증가해가고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대전지역에서도 기존의 접근방법과 통로를 통해서도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향후의 조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기존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문화예술 활동 자료와 정보 취합 통로와는 별도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재단의 지원사업에 응모하거나 참여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통합적인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과 지원사업 등에 응모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동시에 현재, 활동성을 갖추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 예술 단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갖춰져 장기간 운영된다면, 활동성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을 가름하고 이들의 활동 현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축적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구축될 것이라 봄
- 이번 아니라 이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조사를 실행한다면, 조사의 초기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이와 더불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임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이 활동하는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실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매우 유효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공간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면밀한 자료와 정보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는 중앙의 통계시스템과 자료 등에 의존하여 파악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지역의 실제 현황과 차이를 보이는 자료와 정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등록체계 역시 자율적으로 대전시에 등록하거나 자치구에 등록하는 등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문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외에도 문화원, 도서관, 기타 시설 등에서 개최된 사례가 많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와 공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체와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장소와 시설 대부분은 민간주체나 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 등으로 파악됨
- 따라서 공공주체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외에도 민간주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공간 등은 물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공간과 유사 시설 등에 관한 조사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실행되는 구심점이자 거점이라 할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나 공간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 마련은 문화예술 활동 현황 조사의 기초자료이자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임은 물론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제언하는 바임

참고문헌

대전광역시(2021), 『제59회 대전통계연보』
대전광역시(2022), 『제60회 대전통계연보』
대전문화재단(2021), 『2020 대전 문화예술 활동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인천문화재단(2021), 『2020 인천문화예술연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예술 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s://www.kopis.or.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네오룩 <https://neolook.co.kr/>
대전공연전시 <http://www.gongjeon.kr/>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
대전문화재단 <https://dcaf.or.kr/>
대전시립연정국악원 <https://www.daejeon.go.kr/kmusic/>
대전예술의전당 <https://www.daejeon.go.kr/djac/>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nl.go.kr/seoji/>
아트허브 <http://arthub.co.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www.gokams.or.kr/>
전문예술법인단체 <https://www.gokams.or.kr:44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ttps://bnk.kpip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arte.or.kr/>
한밭도서관 <https://www.daejeon.go.kr/>
WEART <http://www.weart.or.kr/>

※ 이외 각종 문화예술 관련 포털 사이트와 기관의 알림, 공지, 뉴스 기사 등과 블로그 등을 통해 대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웹 사이트 주소는 생략함